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 일시 _ 2014년 2월 25일(화) 14:00
- 장소 _ 페럼타워 3층 페럼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 쇄 : 2014년 2월

발 행 : 2014년 2월

발 행 인 : 권 승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신당6동 292-61)

T. (02)2250-3024 / F. (02)2250-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P r o g r a m

- 13:30-14:00 접수

1부

사회 : 노성덕 팀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4:00-14:40 개회식
- 14:40-15:10 특강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예방과 지원방안”
 - 구본용 교수(강남대학교)

2부

사회 : 이창호 실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5:10-16:00 주제발표
 - 주제1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방향” 정제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주제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강진령 교수(경희대학교)
- 16:00-17:00 지정토론
 - 예방정책**
 - 김지연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승걸 교장(남서울중학교)
 - 한길자 박사(충청남도 교육청)
 - 지원정책**
 - 이은경 교수(명지대학교)
 - 전석운 부장(국민일보 사회부)
 - 조규필 박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7:00-17:30 종합토론
- 17:30 폐회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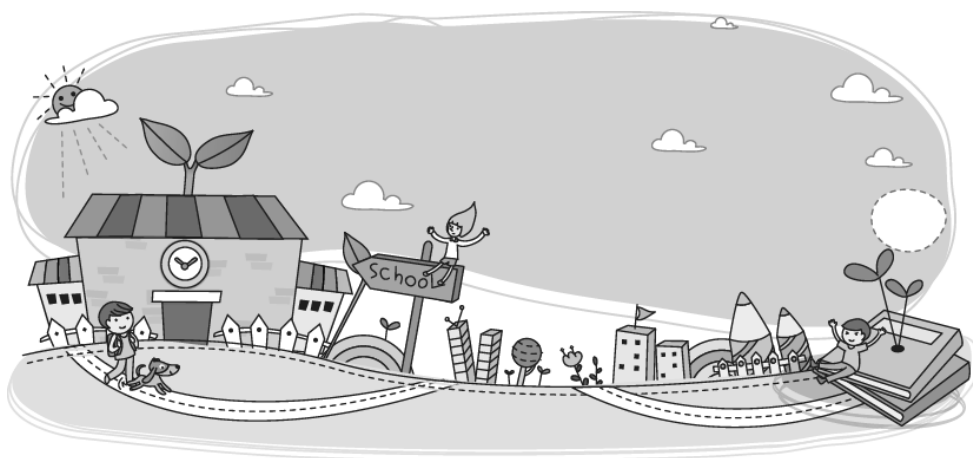
■ 특 강 :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예방과 지원방안	1
구 본 용 교수(강남대학교)	
■ 주제발표 I :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방향	13
정 제 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주제발표 II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47
강 진 령 교수(경희대학교)	
■ 지정토론 : 예방정책	
김 지 연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3
오 승 겔 교장(남서울중학교)	89
한 길 자 박사(충청남도교육청)	95
■ 지정토론 : 지원정책	
이 은 경 교수(명지대학교)	101
전 석 운 부장(국민일보 사회부)	105
조 규 필 박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9
■ 부 록	
1.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해밀	117
2. 전국 Wee센터 주소록	133



특 강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예방과 지원방안

구 본 용 교수 |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예방과 지원정책

구 본 용 교수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 들어가기

잔뜩 풀이 죽어 긴장한 모습의 아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는 아이, 혹시나 하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아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그렇지만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고야 마는 아이들...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하며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이들... 이들이 스마트교실에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길러가는 학업을 중단했던 아이들 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담복지센터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보람이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은 좌절의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아직도 방황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08년 이후부터 약 6~7만 여 명이 학교(초·중·고)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 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원인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이들의 지닌 역량이 더욱 중요해 지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위기이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지표를 삼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개인과 가정

은 물론 사회적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학업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와 학교 밖에서 이들을 돕는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각각 정제영 교수님과 강진령 교수님이 상세하게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귀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예방하고, 이미 떠나간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2013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번 세미나의 자리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발전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하여 왔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 부처들에 의해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문민정부시절인 '96년 1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도탈락 예방교육 강화 및 중퇴생 복교추진을 중심'으로 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을 수립하였고, '97년 2월과 '98년 3월에는 '중도탈락생이 입학을 원하는 경우 수시로 재·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심지어 매 학년 초 2~3월을 「중퇴생 학교복귀 특별기간」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교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

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학생징계제도를 개선하여 교내외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 위주의 학생징계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01
년에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를 비롯한 7개의 정부부처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모여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작업팀이 구성되어 중도
탈락 예방대책과 복교생 및 부적응 학생지도대책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논의
에서는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실업계고에 대한 육성방안 및 중퇴생 예방대책이 마
련되었으며, 대안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편 청소년정
책을 총괄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 및 가출청소년 보호 정
책'을 중심으로 학교탈락청소년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법무부는 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소년원
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수에는 변화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3년 11월에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은 기본방향은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학업중단 실태파악 및 협업·연계를
강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정부-사회 협력을 통한 지
원 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됩니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위기 징후 조기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업중단 속
려제를 '14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게 다양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위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실태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업중단 실태조
사를 실시하며, 범정부적 지역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 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강화하
고, 민간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
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습니다.

〈표 1〉 2013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교육부·여성가족부)

주요 대책	주요 실행 사업 내용
1. 학업중단 예방체제 구축	1) 학교 내 위기학생 지원 강화 - 학교 내 위기 징후 조기발견 및 지원 - 학교와 교육청 역할과 책임 강화 - ‘14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 전면 실시 및 교내·외 연계 지원 -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2)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 시·도 교육청의 학업중단 청소년 사후 관리 및 지원 기능 도입 3)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확충 - 대안교실, 대안학교 설립, 위탁교육 등 확대 및 활성화 4)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2.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협업·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조사 정례화 2) 범정부·지역추진체제 구성·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운영기관)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지정 3)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발견 및 적시 대응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1) 교육 및 자립 지원 - 스마트 교실 등 학교 밖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 2) 취약청소년 생활·의료·주거 지원 확대 3)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4.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 구축	1) 민간자원의 참여 유도 및 나눔네트워크 활성화 2)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가족문화 구축부모와 자녀 소통하는 가족문화 조성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높여 줍니다. 우선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학교입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 오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지도·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학교의 교육 환경이 학교적응을 어려워하는 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 보내기 까지 해왔다는 것은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 저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을 마련한 것은 교육부의 매우 획기적 대응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는 점 역시 반가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학교 밖 전문기관들의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활용하려는 계획 역시 학교의 학생지도 방식의 발전적 변화라는 점에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꾸준히 노력해왔던 대안교육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위한 계획도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한국청소년복지센터의 CYS-Net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학업중단 고위험군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특히 이미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과 사회적응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학교 밖에서 운영되어 온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 학교와 실질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식은 그간의 노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민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가정문화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새로워 보입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은 전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선도적 지원정책일 것입니다. 이 지원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가정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3.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은 청소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교육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세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7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들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번 대책도 과거처럼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가 단지 저의 기우(杞憂)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제자와 토론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께서 훌륭한 발전방안을 주시 것을 기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중퇴학생의 학교 복귀정책은 현장에 수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 하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준비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셔야 합니다. 실행 능력이 담보되지 못한 좋은 정책들은 오히려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기여도는 그 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은 지자체의 관련기관들의 참여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앙

정부의 결정을 지자체 관련기관들이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이고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일선 학교와 청소년지원기관들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시적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나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지원체제가 보다 쉽게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나 학교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중복사업 추진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며,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정책에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셋째,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제공된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몇 명의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느냐 보다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몇 명이나 성공적으로 학교 적응이나 사회진출을 도왔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청소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갈등하며, 때론 견디기 어려운 좌절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성이 변화하고 행동습관들이 파괴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한 이들의 모습을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지원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지원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지원정책은 많은 청소년들을 또 다른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몇 번의 지원이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서비스 제공은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 들어 온 청소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학교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지도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인력의 전문성은 구호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기꺼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저 임금 수준의 그것도 임시직으로 상담원을 채용한다면 그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양적실적을 채우는데 밀려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핍될 때 자칫 속이 빈 정책이 되어 국가적 손실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는 보다 통합적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늘 새로운 형태를 띠고 나타나습니다. 그게 청소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문제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력부진, 따돌림, 인터넷 중독, 가출, 성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은 서로 강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학교폭력, 학업부진, 가출, 교칙위반, 게임중독, 가족갈등, 빈곤문제 등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이 문제가 되면 학업중단에, 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가출문제, 인터넷 중독 문제가 제기되면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각각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룰 수 있을 때 현장의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원 정책은 개인의 성장과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의 수준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 지원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민간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원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원이 확보되든, 국가 예산이 증가하든, 지자체 참여를 높여 나가든 시범사업 수준에서 추진되는 지원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들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청소년 상담도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할 때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부모들도 정책 수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위기 문제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성장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책에서 정책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국한하는 것은 이들의 어려움을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모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나가며

청소년들은 아무도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학업 중단을 고집하던 아이들도 학교를 떠난 지 2~3개월 만 지나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면 못이기는 채 따라가고 싶습니다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에 지친 많은 부모들로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커지는 분노는 청소년들을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역량을 길러내지 못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많아 질 수 록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집니다.

매년 6~7만이나 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면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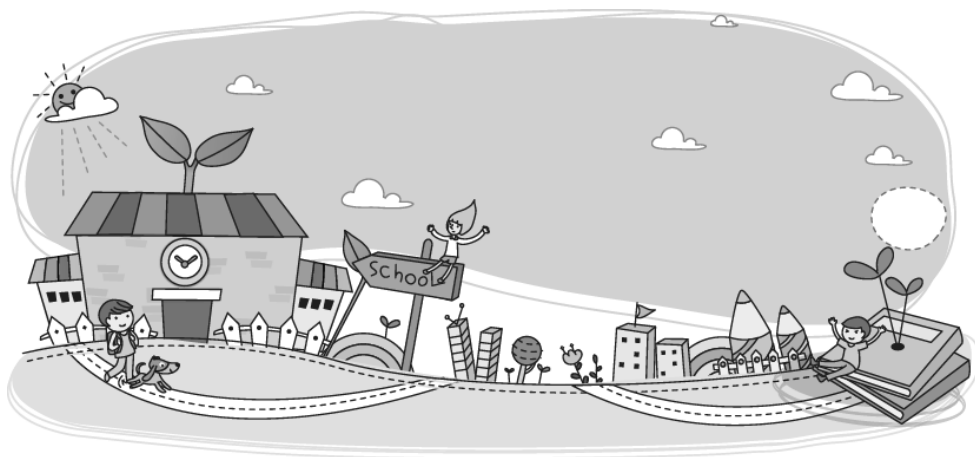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주제발표 |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 방향

정 제 영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 방향¹⁾

정 제 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I. 학업중단, 어떻게 볼 것인가?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재정립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학교를 그만 두고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 왔다. 2013년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령의 아이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서 당연히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학계나 법조계, 교육계 등 주체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

1) 이 발표원고는 정제영·강태훈·김성기·류성창·이덕난·이주연·황준성(2013)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법에 명시된 개념과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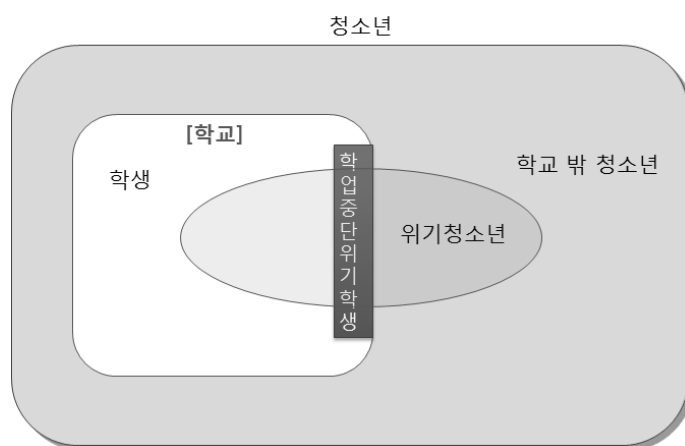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기, 2013). 법령상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령기에 있지만 미취학, 미진학,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서 ‘학업중단’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김민, 2001; 이경상, 2004). 비자발적 상황이란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거나, 학교 부적응, 비행 및 범죄 등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로서의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금명자 외, 2004; 서정아 외,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교를 재학하던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의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학업 자체를 중단하였다기보다 더욱 엄밀하게 정규 학교에서의 재학을 중단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학업중단자’라고 할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은 상당수가 학업중단자

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적·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이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의미한다(구본용 외, 2005).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제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학교라는 제도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차명호 외, 2009). 학업중단 학생들이 모두 위기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학생들이 위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업(재학)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명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업중단 예방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는 학교의 재적여부에 따라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제적이나 자퇴를 명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함관계는 다음 [그림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대상은 학교 안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해당된다.



[그림 1]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개념 및 범주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2013)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나 미국 7.4%(’10년)이나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이유는 학교급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해외출국(45.38%), 미인정 유학·유예(38.64%), 가사·품행·부적응 등의 유예(9.85%), 장기결석유예(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유예(31.69%), 장기결석·유예(30.35%)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경우, 총 34,934명 중 자퇴(96.0%)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그 외 퇴학(2.99%)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유예(0.92%)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자퇴 사유에는 학교 부적응(49.96%)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 외에도 조기진학 및 종교 등으로 인한 자발적 학업중단(22.81%), 해외출국(12.53%), 경제사정 및 가정불화와 같은 가사(6.66%), 질병(4.09%)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퇴자 중에서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 관련(28.30%), 학교규칙(2.92%), 대인관계(1.39%), 기타 부적응(17.35%)이었으며, 퇴학 사유는 학칙위반(2.63%), 학교폭력(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의 계열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11,238명(3.40%)으로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을 나타내었으며, 특수목적고(1,114명, 1.73%), 일반고(20,772명, 1.50%), 자율고(1,810명, 1.26%) 순으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율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100명 중 1.01명

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 현상은 다음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표 1〉 연도별 학업중단률 변화 추이('09 ~ '13)

단위 : 명(%)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2,951,995	3,132,477	3,299,094	3,474,395	3,672,207
	학업중단자	16,828 (9,192)	19,163 (10,771)	18,836 (10,404)	11,634	17,644
	학업중단율	0.57% (0.31%)	0.61% (0.34%)	0.57% (0.32%)	0.33%	0.48%
중학교	재적학생수	1,849,094	1,910,572	1,974,798	2,006,972	2,038,611
	학업중단자	16,426 (14,231)	17,811 (15,337)	18,866 (16,509)	15,736	19,675
	학업중단율	0.89% (0.77%)	0.93% (0.80%)	0.96% (0.84%)	0.78%	0.97%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1,920,087	1,943,798	1,962,356	1,965,792	1,906,978
	학업중단자	34,934 (30,558)	37,391 (33,057)	38,887 (34,091)	34,540	34,450
	학업중단율	1.82% (1.59%)	1.92% (1.70%)	1.98% (1.74%)	1.76%	1.81%
전체	재적학생수	6,721,176	6,986,847	7,236,248	7,447,159	7,617,796
	학업중단자	68,188 (53,981)	74,365 (59,165)	76,589 (61,004)	61,910	71,769
	학업중단율	1.01% (0.80%)	1.06% (0.85%)	1.06% (0.84%)	0.83%	0.94%

- 주 :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 ~ 2013. 2. 28 기준이며 재적 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3)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 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3.9.4.).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아직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경우는 ‘학교중단의 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에 노출된 정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 다니기 싫은 이유는 학업성적, 재미없는 학교생활, 친구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문제가 8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만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학업중단의 주요 사유가 학교부적응인 것을 고려할 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위기행동을 하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학생의 비율을 고려해보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윤철경 외(2013)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서, 이 중에서 고위기학생은 4.5%(335,122명)이었으며, 잠재위기학생으로서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 (1,44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위기학생은 남학생(5.1%)이 여학생(3.6%)에 비해 많고, 초등학교(2.3%)에서 중학교(6.4%)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격하게 많아지며, 일반계열(4.8%)보다는 직업계열(9.5%)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을 보았을 때 읍면지역(5.2%)과 대도시(4.2%)가 중소도시(4.5%)에 비해 많고, 가정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 가정(9.6%)과 재혼가정(11.6%)의 학생이 친부모가정(3.8%)의 학생 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드 및 가스 흡입, 성병 및 임신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고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학교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II.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방향

1. 학업중단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학업중단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업중단 예방 정책이나 제도는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위기로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폭행이나 장기결석 등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처하는 정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와 같은 조치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이것도 사안 발생 후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도 있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안학교는 법령상 대안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평가결과가 없다. 물론 평가가 교육의 과정을 획일화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대안학교들이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앞으로 보내고 싶은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교육도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보내진 아이들이 교육적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

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질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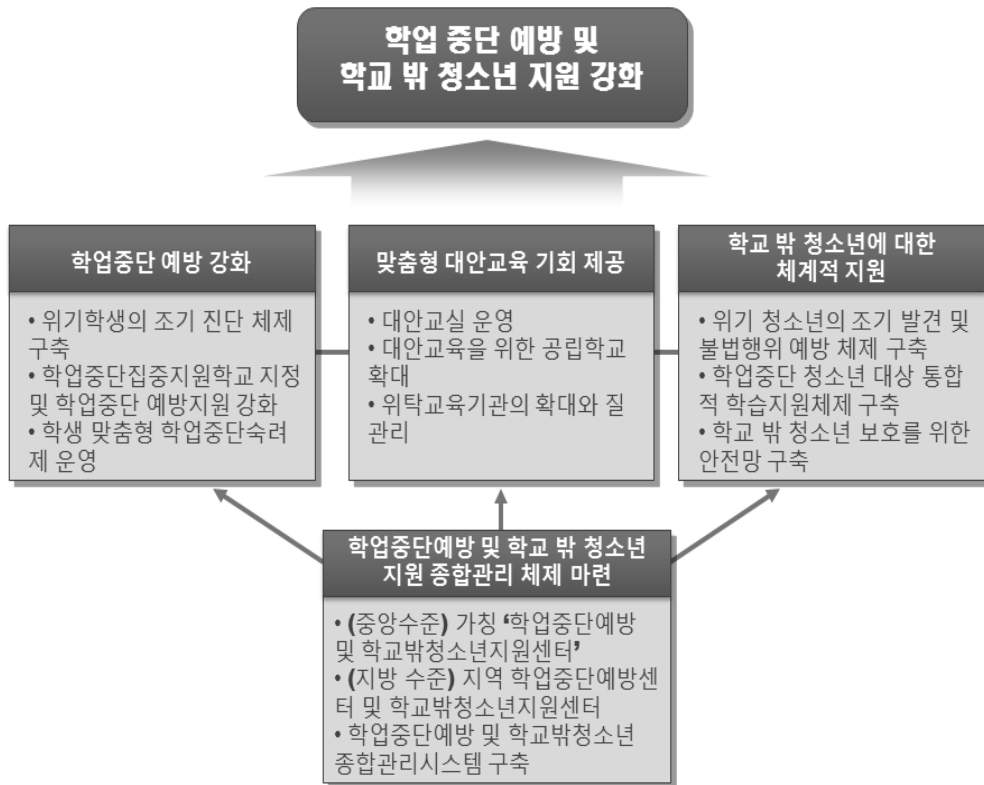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학업지속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나뉠대로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다소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자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그림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Ⅲ. 학업중단 예방 정책 방안

1. 학업중단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가. 위기학생의 조기 진단 체제 구축 : 학교부적응 진단도구 개발

학교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 학생 중에는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 학생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험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잠재위험군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위기청소년은 약 9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2〉 위기청소년 규모(추정)

단위 : 명,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위기 청소년
전체	서비스대상	전체	서비스대상			
만9~12세	상대빈곤(8.2%)	만13~18세	소계	고위험(4%)	잠재위험(13%)	
2,619,196	214,774	4,197,599	713,591	167,903	545,688	928,365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수('08.12월) 및 「경기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06)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체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학업 중단 위기에 이르기 전에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하여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부적응 진단도구’에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의 경우 위기 학생(disengaged students)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체제를 개발하여 운

영하고 있다. 특히 Student Mapping Tool(이하 ‘SMT’)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기 학생 및 잠재 위기 학생을 판별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정서관련 진단 검사 점수나 결석빈도 등 적은 수의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보다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위기학생을 진단하고 있어 보다 전인적이고 다면적인 진단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 학생의 진단은 학교생활의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 위기 여부를 판단하여 한 개인의 전인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이론적 배경이 있다. 인지·정서·행동을 반영한 위기 여부 진단체제의 구체적인 진단내용 영역은 가족과 지역사회 요인, 개인 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적용한다. 진단의 영역은 다양하나, 결국 개별 학교에서 주로 교사의 관찰과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종합되어 적용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교가 개별 학생의 위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 1) 가정배경 자료: 학생의 입학 시 수집되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정보를 의미하며, 과거 학업의 경로, 그리고 개인 및 가정 관련 사항들을 참조할 수 있다.
- 2) 출석 자료: 학생의 학교 결석 유형(pattern)과 기간을 다소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다.
- 3) 정부 자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하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 건강, 복지 관련 종합 자료를 의미한다.
- 4) 교사의 관찰자료: 학생의 학급생활이나 수업시간의 학습활동, 행동의 특이성이나 변화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이다.

SMT는 미리 프로그램화 된 엑셀파일(pre-programmed excel)로서 호주의 학업성취도 정보공시 홈페이지(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NAPLAN)에 학교, 학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지역과 학년별로 특화되어 프로그램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재구성되어 다운받을 수 있다. 받은 엑셀 파일에 위에 제시된 다양한 항목을 수치 및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위기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개별 학생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교사나 학교의 관리 및 지도의 대상으로 진단하는 도구이다. 교사는 개별 학생의 자료를 기존의 자료, 정부(외부)의 자료 그리고 교

사 자신의 관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입력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위기 가능성이 진단될 수 있다. 위기 진단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개별 학생의 관심 분야도 기록하게 되어 있어, 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면담이나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는 해당 자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위기관리 시 개별 학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참조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수준으로 위기학생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빅토리아 주 SMT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위기 학생 진단 체제의 전산화이다. 현재 전산을 통한 위기 진단실태 파악, 분석 및 관리에 대한 필요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자료를 입력 및 분석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필시험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도 심리검사의 직접적인 활용이므로 의미가 있으나, 심지어 이러한 심리진단검사 조차도 컴퓨터화 하여 전산처리 및 분석을 하고, 그에 추가하여 학생의 배경정보나 관찰자료를 같이 기록하여 분석 및 산출할 수 있다면 학생에 대한 보다 가치적인 증거를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거기반 진단체제’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찰기록에 대한 중요성이다. 호주를 비롯한 영미 및 유럽권의 교육문화는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관찰평가를 폭 넓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 진단 학생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도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 교사의 관찰 기록을 중요한 정보로 SMT에 입력하여 전산분석되도록 하고 있어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력’을 감안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질적(qualitative)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체계적인 교원연수의 개발과 적용이다. SMT 프로그램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 연수프로그램과 발맞추어 실행되고 있다. 즉 교사가 SMT 연수를 받고 그 연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SMT 파일을 다운 받아 입력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행연구(action research)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한 방식으로 교사 연수와 위기학생의 진단이 긴밀히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도탈락 문제의 해결 주체를 가정이나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학교(교사, 학생, 교육당국), 기업, 정부(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연방 여성청소년가족부는 학교에 오랫동안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 2의 기회를 주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SF)의 도움을 받아 2006년 <학교 거부-제2의 기회>라는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중도탈락 학생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가 고안 되었다. 체크리스트는 1) 협력기관 근무자, 2) 교사, 3) 학교상담사, 4) 학교심리사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체크리스트는 학생의 행동, 학교 내 상호작용, 수업결손, 수업태도, 학업성취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의 자세한 사례 및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독일 ‘학교 거부-제2의 기회’ 프로젝트 중도탈락 학생 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영역	사례
학생의 행동	• 학생이 평균 이상으로 PC와 대중매체에 시간을 보낸다.
학교 내 상호작용	•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겪는다. • 동료와 문제가 있다 • 물리적/심리적 폭력 행사가 자주 있다
수업결손	• 수업결손 양해를 요청하는 학부모의 연락이 자주 있다 •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다.
수업태도	• 수업 시간에 태만하다 • 수업 시간에 다른 것에 몰두한다.
학업성취도	• 성적이 매우 좋지 않다 • 학생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규칙	• 학생이 학교 규칙을 자주 어긴다. • 종종 수업 거부 행동으로 징계 받는다.
기타	• 천재적 소질로 인하여 수업을 재미없어 하거나 수업을 소홀이 한다. • 언어 결손으로 인하여 수업을 따라 가지 못한다.

*출처 : 최상근 외(2010)

나. 학업중단 예방지원 강화 및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 지정 등 관리체계 구축

학교부적응 진단도구로 조사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에서 특히 학교별로 5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제를 도입하여, 장기결석 상황을 시·도교육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관리를 취해야 한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 파악 및 장기결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상시 컨설팅’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징후’발견시부터 관리카드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부터 학업 중단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를 NEIS에 연계하여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진로상담교사 등 ‘학교 부적응 대응팀’을 구성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차원에서 부적응 징후를 발견한 때부터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대응 종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13.4.1일 조사기준으로 2012학년도(’12.3.1~’13.2.28)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미국 7.4%(’10년),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별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 여건, 학교급, 학교규모, 학교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수가 11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587개교로 약 5%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4〉 2012학년도 학교별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자 수

구분	총학교수	0명	5이하	6~10	11~20	21~30	31~50	51이상
계	11,771	6,556	3,815	813	372	98	74	43
초	6,230	5,111	1,080	30	7	1	0	1
중	3,213	936	1,831	387	59	0	0	0
고	2,328	509	904	396	306	97	74	42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에는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1,889명으로 약 13.9%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상담 전문성을 지닌 고학력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봉사자 집중 배치하여 진로상담, 사이버상담 및 학습부적응학생에 대해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실비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도를 위한 교사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전문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상담관련 교육과정 대폭 강화하고, 부적응 유형별 학생상담 및 지도요령, 상담·치유기관 안내 등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에도 원인을 진단하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 학습·문화결손 치유,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방과후교육·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심각한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등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12.6월~'13.2월) 결과 대상학생 12,776명 중 5,312명(41.6%)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7,464명(58.4%)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5,312명 중 1,138명(21.4%)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373명 학생 중 10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44명(42.3%)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교육청별로 시행된 학업중단숙려제를 살펴보면, 숙려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운영 실시 중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조항을 신설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의무 등 학교장에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실시의 경우,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고교생에 한정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였으나, 초·중·고 학생 본인이 학업중단의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진단’ 결과 학업중단 위기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숙려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2주간 운영하고 있다. 2주의 기간은 학업중단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담·진로탐색 등의 기회를 갖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려기간에 대해 좀 더 장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의 성격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2주를 기준으로 수업일수의 최대 1/6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숙려기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상담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숙려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후 학업지속율이 높지 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활동이 주로 Wee클래스에서 이뤄지고, Wee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상담은 카운슬러와 내담자간 신뢰(rapport)

형성이 관건이며, 1~2회 상담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성과를 내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은 현행 상담 위주에서 학생의 위험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장기간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캠프와 연계, 여행 프로그램, 사회적 멘토링 제공,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외부 기관(Wee센터, 상담복지센터 등)에 의뢰·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Wee클래스, Wee센터의 상담인력을 전문상담 교사로 확대하고, 기 채용된 상담사 연수를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2.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가.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 확대

대안교실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사고를 일으킨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든가 위기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교과서를 가르치기에 앞서 사람을 가르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대안교실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대안교실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안교실에서는 학생의 특성과 흥미,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교육과정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해당 학생과 상담교사 등이 긴밀한 상담과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학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적응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진단과 처치, 적성계발과 진로 탐색 등 학생을 다시 재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학교 안 학교(School Within-a-School)’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안에 특별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다소 독립적인 행정체제,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하고 독특한 학업 및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대안교실(Alternative Classroom)과 같이 독립된 학교가 아니라 교실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도 학교 안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이 공간에 배치되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영웅’ 취급을 받거나 ‘문제아’로 취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학생들이 많이 모인 경우 분쟁이 일어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대안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확대

2013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립 특성화고를 설치하면서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대안교육의 특성상 소규모학교로 운영되므로 학생정원은 전교생 120명 내외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여건과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별로 거점 대안교육기관으로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거점 대안교육기관으로서 공립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의 교사들을 대안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설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00억원을 신설비용으로 쓰지 않고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한다면 학생 15명 정원의 위탁교육기관 100개를 매년 2,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할 수 있다. 막대한 신설비용과 공립학교 교원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소모하기보다는 민간위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지원금에 대한 재무회계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다. 위탁교육기관의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위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위탁교육은

정규학교와 달리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제공한다는 의의도 있다.

예컨대, 대학과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시설, 평생교육시설, 극단, 연구소, 인간문화재, 종교시설, 도제식 훈련과정의 다양한 민간단체들도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두는 한국기원, 방송사 교육 기관, 국립국악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분야별 전문 기관도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 그리고 그 곳에서 위탁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위탁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흥미에 맞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2013년 현재 전국에 391개 위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기보다는 장기 위탁교육기관이 효과를 많이 보인다고 한다. 위기학생들의 특성상 위탁교육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위탁교육기관을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대안교육 수요도 많은데 지정된 시설이 거의 없어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초등과정에서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실제로 검정고시를 치르기 곤란하다. 따라서 초등과정에서는 대안적인 교육기회가 더 필요하다.

아울러, 위탁교육기관의 상근교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상근교사 월급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위탁교육지정을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이 재무 회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의 상근 교직원이 정규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학생에 대해서 보호, 교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가. 중앙 수준 : 가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²⁾

1) 센터의 위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다. WEE센터나 상담지원센터나 두드림해밀 등 ‘센터’는 많지만 고리가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서울이나 광주 등 지자체에서 만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 국가 차원의 가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대안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경우에 국가 차원의 센터에서 통합적 정보를 갖고 안내하고 중계할 수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이나 관리·감독 사업도 수행할 수가 있다.

상담기관에서 상담만 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상담만 하고 끝난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의 WEE센터, 지역별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 그리고 단위학교가 연계된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86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역의 중퇴율 개선하고 및 고등학교 졸업률을 제고하고자 국가중퇴예방센터(The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 /Network (NDPC/N))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주 별로 다르게 수집되는 중퇴율 및 졸업률 관련 통계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clearinghouse)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다양한 보고서나 책자로 출판하고 있으며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 및 주 정부 수준에서 중퇴율을 감소시키고 졸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보급 및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실태 분석이나

2) 이 부분 중 센터설립에 대한 부분은 김성기(2013:42)의 발표원고를, 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김성기 등(2009:171~174))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임

정책 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수치에 기반할 수 있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여 연구와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 및 위탁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국가중퇴예방센터에서 정립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안 및 위탁교육의 유형을 참고할 만하다. 국가중퇴예방센터에서는 크게 “외부 대안교육(outside the system)”과 “내부 대안교육(inside the system)”으로 나누고 있다.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고비용의 사립학교와 같은 엘리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종교재단 학교, 홈 스쿨, 대안학교 등이 해당한다. 내부 프로그램은 학교 내의 특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습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특수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학생(teenage parents) 프로그램, 잠재적 중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폭력적 학생 프로그램, 법정 관리 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구치소 학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도탈락 학생들과 관련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국가중퇴예방센터에서 다년간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운영과 특성 기준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

2) 센터의 역할

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재 필요한 도움은 검정고시 준비 35.8%, 경제적 지원 14.9%, 기타 13.4%, 기술습득 10.9%, 일반학교 복학 10.3%, 취업 9.8%, 대안학교 입학 1.7%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에 대한 가장 필요한 도움은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업중단자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방송에 검정고시생을 위한 인터넷강좌를 개발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2/3정도인 66.5%(602명)가 한 번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학업중단자 대부분은 중단학교급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학업중단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정고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시 하고 싶었던 일은 취업후돈벌기(28.0%), 놀고 싶었음(24.6%), 검정고시 치고 싶었음(14.8%), 원하는 분야 기술습득(14.2%), 대안학교 가고 싶었음(10.7%), 기타(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중단자들이 취업을 하면서도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이후 과반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어떤 일로 돈을 벌었는지(수입원)를 물어본 결과 배달 11.4%, 주유원 8.2%, pc방 6.5%, 패스트푸드점 4.6%, 물건판매 4%, 성관련 1.2%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 다수가 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이혼이나 주거불안정, 채무 등에 의한 가사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자지원센터를 통한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시행한다.

인터넷상에서 학업중단청소년 탐색, 상담, 교육, 대안학교연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또한 특성화학교(대안교육분야, 직업교육분야) 등 정규학교(학력인정)에 복학하거나 대안학교(학력비인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진로상담 등 재기를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다) 미관리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

보호관찰소 응답자들은 복교·복학·재입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응답자들은 21.1%로 복교율이 낮았고, 시설 응답자들은 이미 대안적 공간을 찾았기 때문에 복교율이 10.6%로 가장 낮았다. 거리응답자, 즉 보호관찰소나 시설 등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적 교육기회를 찾아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자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미관리 학업중단 청소년’을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관리·지원해야 한다.

라) 대안학교 정보 제공

대안학교 경험여부를 물어 본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86%와 거리 응답자의 86.2%가 대안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대부분의 학업중단자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로 적절한 대안적 교육기회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시점에서 학교담당자들과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대안적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학업중단시 부모와 상의한 청소년이 대안학교를 경험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혼자 결정하거나 친구와 상의하는 등 부모의 관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교육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등의 학업중단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등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하여 가사지원은 물론이고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여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지방 수준 : 지역 학업중단예방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와 같은 중앙 센터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학업중단예방센터는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학업중단예방센터는 정규학교에서의 장기결석자를 대상으로 한 학업 중단자 DB를 관리하고, 학업중단자 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을 수행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로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학업중단예방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두 센터의 역할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 통계 시스템 개편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서는 학교급별 미취학자, 학업중단자, 미진학자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취학자의 경우 ‘입학상황’이라는 항목에서 ‘유예 및 과령 아동’의 수치를 제공하고 ‘학생변동상황’에서는 ‘유예자, 면제자’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후자의 유예자에는 입학후 유예자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취학연기자와 취학유예자, 입학후 유예자, 면제자 등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 조정이 필요하다.

2)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를 그만 둘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별 자료입력부터 국가차원의 통계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미취학자에 대해서 현재는 자료만 받아두고 있는 상태이다. 동사무소에서 그들의 미취학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가 자의적으로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불법적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학업중단자에 대해서는 현재 NEIS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학교를 그만 두고 나면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대안교육센터 등에서 연락을 하여 지원을 하고자 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예컨대, 고등학교 중 방송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

다.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나 홍보를 하려 해도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안내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 가칭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공공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상으로도 취학의무와 같은 법정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 부모의 연락처를 위와 같은 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위 제6호에 의하여 교육권 실현이라는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업중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인 가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학업중단종합관리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사례를 발견하고 서비스제공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는 물론이고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관, 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상담과 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활용

학교 밖 청소년은 마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집대성한 집합체이다. 학교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 심리적 문제, 가정문제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학교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임중독이나 자신감상실이나 가사문제나 가해학생이나에 따라 대책이 달라야 하고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가정문제로 가출을 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가출팸이나 성인을 따라간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래에 그들이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별 대응과 지원 내용을 담은 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례와 경험들이 있다. 각 단위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위의 센터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집, 체계화하여 매뉴얼로 개발한다면 학교는 물론이고 각 시설에서 학생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법제화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³⁾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결석 및 취학의무 유예, 제적·퇴학·자퇴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3)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국회, 2013.3.20.

이에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 가족 관계, 취업정보,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사회적 참여 활성화 및 교육청과 지자체의 책무성 확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 공공기관, 단체·협회, 학부모 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민간 기관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뜻 있는 민간단체 또는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법인 등록 등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교원·학부모 관련 단체, 교육청, 지자체, 대학, 초·중·고 학교 등 참여를 통한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간 1대1 멘토링(1촌 맺기) 운동, 기업 등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및 쉼터·숙식·직업 훈련 기회 제공 등 사회 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지원 체계, 지원 프로그램,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적 등 노력을 교육청의 평가 지표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노력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대안 교실 등 대안교육 활성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 간 협업 등 평가하고 있는데, 총점 3점으로 크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시·도 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배점 상향 조정 및 항목 조정하여,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돌봄·상담 지원 등 노력에 대한 평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Ⅳ. 시작하는 결론

독일이 낳은 대문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14세에 명문 수도원의 기숙사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적응과 신경쇠약으로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둔다. 이때의 경험을 서술한 소설이 유명한 ‘수레바퀴 아래서’이다. 당시의 엄격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헤르만 헤세는 소설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망치거나 내쫓긴 아이들 중에 일부는 사회의 정신적인 재산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숫자를 알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은 무언의 반항심과 더불어 자신을 소모하고 마침내 파멸하기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독일의 19세기 말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주인공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12년 이화여대 연구에 의하면 학생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학생은 40.3%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10명 중 4명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까지의 학령인구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40만 명이고, 이 중에서 대안학교 등 소재가 파악된 학생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약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 전체 고등학교 재적 학생 1,920,087명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34,934명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33,553명, 96.05%)와 퇴학(1,045명, 2.99%)이 대부분이었으며,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학업관련, 학교규칙, 대인관계, 기타 부적응)이 17,454명(49.56%)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 사정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는 2,327명(6.66%) 이었다. 학업중단의 중요한 사유가 학교 부적응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호주 빅토리

아주 교육부에서는 SMT(Student Mapping Tool)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 개인 정보보호의 명목으로 아이들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학생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위기로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출석일수만 채우면서 본인의 삶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교 밖에 있는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미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는 생활과 학습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아웃리치(outreach)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는 교육부, 학교 밖 여성가족부와 민간에서 맡고 있는 단절적인 지원체제 형태인데, 학생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정보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재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2013년 말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중요한 정책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현장에서 실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노력은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외(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2012). 학교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보도자료(2012.5.25.)
- 교육부(2013). ‘학업중단 숙려제’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5,312명 중 1,138명(21.4%) 학업 지속. 보도자료(2013.6.24.).
- 교육부(2013).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3.9.4.).
- 구본용 등(2005). 위기 (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권현진(2011)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인천 : 인천발전연구원.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성기(2012). 초·중등학교의 학업중단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교육발전연구, 28. 29-44.
- 김성기(2013a).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안”. ‘학교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김성기(2013b).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기·조동섭·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강경제논집, 40(3), 63-94.
- 노동부(2010). “취업고민, 이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세요.”, 보도자료(2010.02.10.).
- 류방란 외(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반재천·천세영·김미정(2012). 2012 초중등학교 주요 공시정보 분석보고서. 교육과
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배주미·김동민·정슬기·강태훈·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청소년상담연구’ 제154호. 한국청소년상담원.

백혜정 외(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서울특별시(2012).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서정아 외(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오승근(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21.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윤철경(2013).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정책 과제. “학교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자료집 (pp. 1-32).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

윤철경·류방란·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2013). 학업중단 학생 중단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이영선·김경민·김래선·박양민·서선아·유춘자·이현숙·전소연·조은희·차진영(2012). 학
교폭력 및 청소년상담 위기개입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창호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방안.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이혜숙 외(2010).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지원 방안. 서울 :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이혜영 외(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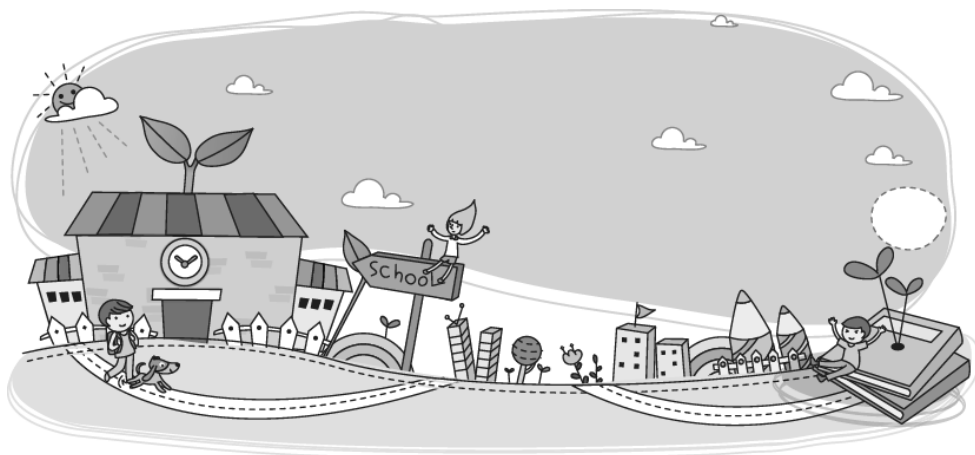
- 차명호·한상철·김인규·양종국·정경용(2009).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동선·이상준(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근·양수경·남기곤(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12.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 한유경 외(2012). 위기학생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Cash, T. (2004). Alternative schooling. In Smink, J. & Schargel, F. P. (Eds), Helping students graduate: A strategic approach to dropout prevention. Larchmont, NY : Eye on Education.
- Hefner-Packer, R. (1991).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 A prescription for Success. Monographs in Education. Athens, GA : The University of Georgia.
- Raywid, M. (1994). Alternative schools : The state of the art. Educational Leadership, 52(1), 26-31.



주제발표 I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강진령 교수 |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강 진 령 교수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I. 서 론

청소년기는 흔히 미래의 삶을 계획·설계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학교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자신의 미래를 구체화 시키며, 꿈을 키워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잖은 청소년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설령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그 수가 2012학년도에만 68,188명에 달하였다(교육부, 2013).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생애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이 된다. 또한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생계 곤란으로 인해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전경숙, 2006). 한편, 정서적 측면에서는 외부의 인식뿐만 아니라 심리내적으로도 사회적 낙오자라는 ‘심리적 꼬리표’가 붙게 되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청소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으로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낮은 학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설령 고용되더라도 저임금으로 인해 저소

득층 가정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장차 정부의 복지수급 대상자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세대 간 유동성, 즉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는 사회·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사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실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가출·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조치였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 역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즉, 현행 법률과 정책들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단기적인 보호 또는 유해환경에 노출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제도와 시설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에 걸맞게 지원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연구’(강진령, 노기호, 김범구, 윤소민, 2014) 내용,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현행 법체계 검토,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기관 실무자 욕구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을 파악하고 실무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체계 및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외국 법제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러나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과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이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 4개국의 입법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외국의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입법례와 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입법정책과 제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

독일의 학업중단 학생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 입법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학교보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한 관할과 감독은 연방 교육부가 담당하고,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연방 노동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행정체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는 독일연방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같은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와 분담과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명확한 구성이 요청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유럽사회기금의 재정 지원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와 가정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외계층과 이주민 자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기처방

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의 추진이 우리의 경우에도 요구된다.

셋째, 독일 연방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단일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법령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수행의 근거가 미비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개의 정책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시행되어 정책의 혼선과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속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2. 미국

미국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과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법제를 제정함과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를 연방차원의 제도와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각 주(州)에서는 주의 실정에 맞는 법률 제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연장하여 실제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의 연령이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상교육이 법제화 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일본

일본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교정비와 학교전문상담 교사 배치를 통한 교육상담체제를 충실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가정과 학교 및 지역이 연계된 ‘학교지원 네트워크(SSN: Schooling Support Network)’의 정비를

제안하여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학업중단 문제해결의 목표를 학생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자립에 있다고 보고, 복교에 최종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이 시사적이다.

4. 스웨덴

스웨덴은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한 지원체제 수립에 있어서는 먼저 교육체제 전반이 평등의 원리로 구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을 위한 정책의 특징은 영 아웃사이더들(young outsiders)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제정 등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는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Ⅲ.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의 욕구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대상을 6가지 유형(숙려대상형, 비행형, 학력취득준비형, 취업준비형, 복교생, 복교생의 학부모)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복교생 학부모의 욕구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숙려제

가. 숙려상담의 전문성 신장 및 운영의 내실화

첫째, 학업중단숙려제는 운영방식, 숙려상담의 내용 및 전문성, 숙려 기간 등에 대한 수혜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까지 시범운영 중이었던 학업중단숙려제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3.10.30), 이로써 2014년 약 4만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2013. 11. 28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숙려상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르면, 숙려상담은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숙려상담의 내담자는 학업중단 직전의 위기학생이다. 이들은 학업중단을 전제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극한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단기상담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숙려상담을 받았던 청소년 중에는 상담자로부터 상처와 배척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라포형성도 되기 전에 상담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기상담을 전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칭 ‘학업중단 코디네이터’를 양성·활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숙려상담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숙려상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교사 및 또래들과의 관계문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자체에 대한 거부감, 원치 않은 학교선택 등을 이유로 학업중단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즉, 숙려상담에서는 상담 이후 학업을 지속하려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을 제공하고, 학

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중단이후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 중단 코디네이터는 숙려상담 이후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 기관, 지원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역할수행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숙려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나. 숙려상담 회기 수 증대 및 추수상담 실시

둘째, 숙려상담의 회기 수를 늘이고, 추수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숙려상담이 학업 중단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의 회기 수를 늘여 깊이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 중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학업중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거나 취업 등, 막연하지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숙려상담의 내용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격려, 정보제공, 지원기관,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비롯하여 진로상담을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숙려상담모형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최소 회기 수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숙려상담 종결 이후 2~3주 정도의 일정 기간 후에 추수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중에는 중단 이후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복교 의사를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다가 학교 밖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려상담 담당교사는 숙려상담 종결 시 연락망을 확보하고 학생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복교 의사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추수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 숙려상담 대상에 학부모 포함

셋째, 학부모를 숙려상담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학업중

단숙려제 상담안내서에는 상담의 두 번째 회기에 부모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본용, 2013). 이는 권장사항으로, 일반적인 숙려대상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복교생의 학부모 대상 면접에서 이들은 비록 여건상 어렵지만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상담에 응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학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을 때, 부모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였지만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등 고충이 따랐다고 답하였다. 자녀의 학업중단은 부모에게도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자괴감 또는 좌절감이 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상담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있었다면, 기꺼이 도움을 청하여 학업중단 예방 또는 중단 이후의 계획수립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숙려상담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코디네이터는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배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지만, 중단 이후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문제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취업, 복교의 세 가지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비롯한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뚜렷하게 준비할 것을 찾지 못한 채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원,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의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학업문제, 심리적 갈등, 진로 및 취업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멘토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코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커리어 코치, 복교 준비 및 학교생활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학업중단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나.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을 위한 학습코치의 양성·배치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코치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학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로 검정고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자적인 학업지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터디 그룹 등과 같은 형태의 도움을 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습결손을 개인차에 맞게 보충해주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학업 수월성과 학업지속을 도울 수 있는 학습코치의 양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다. 취업준비 청소년을 위한 커리어코치 양성·배치

취업준비 청소년들을 위해 커리어코치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곧 바로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과 같은 구체적인 구직방법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커리어코치를 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기관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구직과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라. 복교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코디네이터’ 양성·배치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중단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관의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복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을 준비할 뿐 학교생활 재적응을 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면접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학부모들은 자녀의 복교와 재적응을 위한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재중단을 막을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이 될 뿐만 아니라 복교생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원, 취업사관학교 등 학교 밖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기관 실무자는 복교할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재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장면에 학업중단 코디네이터의 배치가 필요하다.

마. 학업중단 이후 지속적 연락 유지

학교 밖 청소년은 중단 이후부터 지속적인 연락 유지 및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로부터 등교 권유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자퇴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면 더 이상 학교로부터 관심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배척받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즉흥적으로 자퇴를 했다가 2~3주 후에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취했어야 할 조치를 모르거나 용기가 나지 않아 복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상의 또는 도움을 청할 어른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려상담을 실시한 학업중단 코디네이터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때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추수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 취업으로 자립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취업으로 자립한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인 연락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한 경우, 기관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한 이후에도 사회 적응 중에 발생하는 당면 과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원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소년원을 출소하면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소년원의 교사들처럼 자신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 멘토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배치된 커리어코치는 구직과정뿐 아니라 취업 후 자립한 청소년들과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사. 복교 청소년의 재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

복교 청소년의 재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복교 청소년은 복교를 했을 때, 자신이 학업을 중단했던 이유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복교를 결심하면서도 학업 뿐 아니라 교사나 또래 학생들과의 선후배관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교 이후 학업 재중단을 막고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복교준비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는 복교 의사가 있는 학생을 해당 학교 학업중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복교 이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해결하고, 부족한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교 이후에도 곧바로 학급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교생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생이 학급에 배치된 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추수상담을 실시하여 적응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건전한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 형성·유지

학교 밖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건전한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과 동시에 학교 친구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고립된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이 비행을 더욱 부추기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전한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의 외로움과 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우관계, 대화기술, 진로탐색 등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복교청소년의 학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가. 학업중단숙려제에 학부모상담·가족상담 지원

학업중단숙려제에 학부모상담 및 가족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과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심층면접결과, 복교생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와의 소통 부재, 원만치 못한 관계, 위기상황이 되기 전에 보살피지 못한 것 등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원만치 못한 관계로 인해 자녀의 학업중단을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자녀가 갑작스럽게 학업중단을 통보했을 때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업중단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 학부모상담, 가족상담 등을 필요로 하였다.

나. 학교 밖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중단 이후의 생활 안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부모 대상으로 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업중단 이후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 자녀의 심리적 불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이나 중단 이후에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코디네이터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이후의 생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커뮤니티 형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부모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학부모들도 사회적 소수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가 부족하다. 또한 자녀의 학업중단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정서적 교류를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Ⅳ.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설문결과와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두드림존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1) 학업중단숙려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 영역별 지원 서비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무자로 영역을 나누어 실시되었다.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숙려제

2013년 11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2013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를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는 조치로서,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음으로 이어져야 할 2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중단숙려제의 상담회기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들은 숙려상담 횟수에 대해서 현행 2회 이상의 상담회기의 필요성과 함께 숙려상담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령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업중단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교육부의 보도자료(2012.6.24)에 의하면, 58.4%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숙려상담의 회기를 늘리는 한편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조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 숙려상담 방식의 다양화

상담방식 및 상담내용에 대해 현행 실시하고 있는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상담을 포함하여 접근방식의 다양화 및 학업중단이 개인문제만이 아닌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숙려상담은 단순히 개인상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요구에 적합한 방식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 전문적인 숙려상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들은 숙려상담의 필요 과제에서 ‘전문 인력 배치’, ‘상담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이후의 안내를 위해 정책적으로 숙려상담을 실시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숙려상담에 대한 준비가 짧아 숙려대상을 상담할 전문 인력 부족이 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전문성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숙려상담교육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숙려상담 청소년의 특성,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려상담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라. 숙려상담 기간 외 추수상담 회기의 필요성

숙려상담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소극적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상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숙려상담의 취지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것으로, 단순히 학업중단을 위한 요식행위로 여길 수 있어서 숙려상담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려상담 기간 외 학업중단 결정을 위한 2주 후의 추수상담 회기를 포함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학업중단에 대해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적극적 정책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설문대상 실무자들 중 14.8%만이 유관기관 간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연계,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12%의 청소년만이 자발적으로 방문할 뿐, 대부분이 기관 및 학교에서의 의뢰, 부모님 소개 등 간접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상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업을 중단하기 전부터 학업중단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학업중단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적극적 지원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는 등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이후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학력취득, 취업준비, 진로미결정 등으로 유형화하는 한편,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상담, 체험활동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3. 영역별 지원 서비스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순서 고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일시적·종합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면, 예산 및 인프

라 확대 시 진로지도, 상담지원, 학업지원 순으로 정책 서비스 순서를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83.0%의 실무자들이 발굴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자퇴원 작성 시, 학교에서 의뢰 의무화’, ‘유관기관 간 제도적 협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관부처 간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학업 중단 시 즉시 연계, 유관기관에서 발굴시 즉각적인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실무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서비스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부처 간,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총괄할 부처를 선정해 책임 있고 실효성 높은 발굴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기술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기술 지원에 있어 규칙적 생활태도, 대인관계 기술, 자기조절 훈련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구, 조아미(2013)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인 규칙생활태도, 대인관계 기술, 자기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조그마한 외부 자극에도 힘들게 미래준비를 위해 준비한 것도 중단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멘토 등 청소년들에게 생활기술에 대한 돌봄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라. 학업중단 이후 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리어코치 제도 시행

넷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리어 코치 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이 진로미결정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진로문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상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체험활동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담 커리어 코치와 함께 진로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진로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커리어 코치는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상담 받은 청소년들의 이력관리, 그리고 향후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성공요인, 장애요인 등을 정보시스템을 활용·평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 학업지원을 위한 차별적 전략 요구

다섯째, 학업지원을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학업지속을 위한 방법으로 실무자들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습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학업 멘토제 운영, 학습흥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학습에 대한 지원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복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 문제해결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과 함께 복학 이후 높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복교 후 학교에서의 적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준비에 있어서도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바. 취업준비에 대한 역량 강화

여섯째, 직접적인 취업보다는 취업준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실무자들은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한 연령으로 적합하고 직업기술훈련, 취업전문학교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신분으로 취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 업종에 취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취업준비에 대한 역량 강화가 선행되고 나서 취업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여건개선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직무만족, 동료관계 등 내재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보수가 적거나, 신분 불안정의 외재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뿐 아니라 개인, 가정, 또래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발굴,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소진이 클 뿐 아니라, 힘들게 진행해온 사례가 사소한 자극에도 중도 탈락하는 등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자가 이직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새로운 실무자와의 관계형성을 어려워하여 그동안 받아왔던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모델이자 든든한 지원자로 인식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V.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전방안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령 제정

법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적극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독립적인 법령 제정이 요구된다.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의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학교 및 유관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있어서의 어려움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조,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공교육기관을 떠나는 순간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서 분리·방치된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배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63.8%가 검정고시, 학교복귀, 대안학교, 취업과 학업병행 등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한 반면, 13.2%는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원하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윤철경, 2013)는 연구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등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의 지원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는 선진국의 체계적인 자립정책과 제도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미진학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진학자는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10)은 매년 6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방안 수립·실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처별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교육의 기회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대안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에서 세대 간 유동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이 중차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만일 독립법안이 제정된다면, 제정된 법령을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감소시키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종합지원대책 수립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된 모범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Dropout Prevention and Recovery Act(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개별 욕구조사를 통해 제도권 내로 연계·지원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넷째, 향후 미진학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명시된 독립적인 법령이 제정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진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학자들을 방치해 온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위적인 과업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

두 번째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업무의 총괄적 역할과 기능과 함께, 코디네이터로서 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확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수행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중심축이 되어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연구부(BMBF)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주무 부처로 활동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환경 SWOT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Strength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하우 축적 •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Weakness • 학교 내·외의 부처별 중점 역할 차이로 인한 발굴 어려움 •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타 부처 협력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가 1명으로 정책개발 인력 부족
Opportunity • 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대상 타겟팅 • 범국민 정책홍보 강화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정책개발 수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연계자원 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Threat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편견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 개선 • 지자체의 지원 강화 및 인력누수 심화

[그림 1]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SWOT 분석

가. 강점요인

강점요인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하우가 이미 축적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시작된 해밀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에 있어서 노하우 축적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CYS-Net, 두드림·해밀,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정책개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나. 약점요인

약점요인으로는 동일한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있느냐, 학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부처 간 정책 대상이 달라져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내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통로인 학교 내에서의 연계가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등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처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직업훈련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나 이러한 기능은 타 부처의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을 위한 개발인력이 부족하다.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는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업무를 고려한다면, 조직구성에서 최소한 팀 또는 과 이상의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다. 기회요인

기회요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11월 27일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서와 같이 교육부는 학교 내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점부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국민 대상 정책홍보 강화, 전문상담자 및 멘토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가족부만의 차별화된 정책개발로 범국민 대상 정책홍보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발굴을 위한 거점 공간 활용, 직업훈련기관·창업지원기관 등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활용 등을 추진하여 학교 밖 자원 인프라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다.

라. 위협요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령기의 1%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행청소년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공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및 심층면접 분석 결과,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사와의 갈등, 언어 및 신체 폭력 등 학교폭력의 피해, 학교 밖에서의 진로 찾기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진로를 위해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진로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여,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6개 지역에서, 2013년에는 11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공통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즉,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모형을 개발하여 협력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특성화하여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예처럼 중앙부처가 청소년 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통해 정책의 일원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실무자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마음을 터놓고 상담 받고 진로계획을 세우는 실무자들의 고용안정성, 급여 등 외적 근무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총괄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부처 간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을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시 연계상황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연계·조정 및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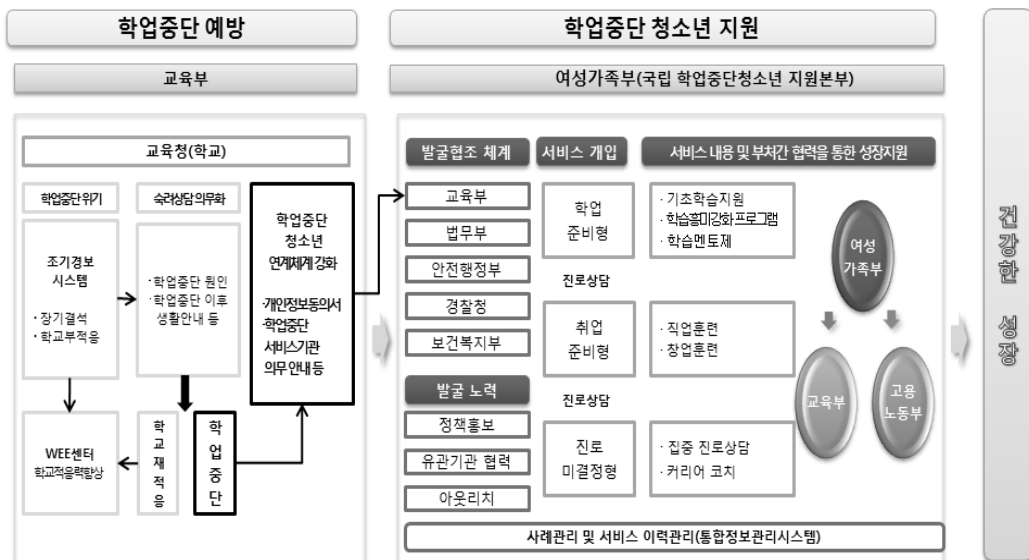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타 부처와의 실질적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우선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굴을 위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을 기초로 하여, 교육부는 자퇴, 유예, 면제, 퇴학 등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법무부는 범죄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1-7호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 퇴원예정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로의 발굴협조가 필요하다.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등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는바 그 가정 내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에 이에 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미한 비행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보호활동 차원으로 학업중단 이후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정대상 자활사업, 또는 보건소의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제작, 학교 밖 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1〉 발굴협조체계

구분	협조 대상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법무부	- 보호처분 1-7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 소년원 퇴원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예방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안전행정부	- 주민자치센터 관리 가정 내 학교 밖 청소년

구분	협조 대상
경찰청	- 경찰서에 의뢰된 중 학교 밖 청소년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가정 중 학교 밖 청소년 - 보건소 건강지원서비스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서비스 흐름도를 구성하면 그림 2와 같다. 학업중단 예방 및 조기 발굴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은 각각 다음과 같다. 장기 결석, 학교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상담 전담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조기발굴시스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숙려상담의 의무화와 함께 현행 숙려상담 대상인 고등학교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시켜 학업중단을 적극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내용은 3번 이하 ‘맞춤형 진로서비스 제공’부터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서비스 흐름도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가칭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설이 요구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총괄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굴 및 정보연계 추진
-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추진
- 학교 밖 청소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지원본부(산하 기관) 관리·감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및 평가 추진
- 민간지원 발굴 및 지역 연계 추진

이 부서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다른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주무 부처로서의 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진로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한편, 직업훈련 기간을 대학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로에 따른 유형화를 선행연구(김범구, 조아미, 2013; 윤철경, 2013)와 실무자 조사결과, 크게 학업준비형, 취업준비형, 진로미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개입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서비스 개입 유형

구 분	대 상
학업준비형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복교, 대안학교 입학 욕구 대상
취업준비형	- 직업훈련, 창업 준비 대상
진로미결정형	-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 학업 및 취업준비 동시준비, 아르바이트 대상

학업준비형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복교, 대안학교 입학 등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수준 측정, 학습흥미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준비에 있어서 멘토제의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는 기관별로 지역사회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학습멘토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준비형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부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가칭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센터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센터에서 90시간 이상 검정고시 학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시험응시 시, 해당 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또한 복교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복교를 신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함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별로 운영한다면 복교이후 학업중단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형은 입직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유형으로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의 지원과 함께 취업준비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취업처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행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사관학교 등에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여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창업교육을 별도로 개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취업처 제공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진로미결정형은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인력인 가칭 ‘커리어 코치’를 센터 당 2-3명

정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커리어 코치는 청소년의 심층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계획 이행 과정을 함께 점검하며 결국 학업준비형 또는 취업준비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4. 가칭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 관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한 추진해야 할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가칭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복교지원, 검정고시 준비, 대안교육 안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를 구축·활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기회 확대 등을 담당한다. 이를 기초로 가출 또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칭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비행형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이 기관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길거리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상담, 보호, 교육을 담당한다. 방임에 장기간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기초생활 관리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아웃리치, 즉 파견 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수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조직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

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를 배분·지원하는 허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단위학교, Wee센터, 상담관련 기관, 쉼터,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급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정보를 해당 학생의 동의하에 수합하여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보내도록 한다. 이 센터는 해당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센터에게 개입 요청을 하는 한편, 그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감독한다.

5. 국가 차원의 가칭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정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고, 청소년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협력, 아웃리치 등을 통한 발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향후 검정고시 학력취득, 취업준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행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

6. 조기발굴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

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를 떠나있는 청소년 가운데 미인이 대안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의 재학생을 제외한 인원으로 추산되는 28만 여명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발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학교별 자료 입력부터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연계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미취학 사유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는 종교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가 자의적으로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자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미시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의 경우,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전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상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청소년의 인권존중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고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진령, 노기호, 김범구, 윤소민. (2014).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발표. 2013. 9. 4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자료집. 2013. 11.
- 구본용. (2013).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안내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윤철경.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정책 과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자료집, pp. 1-32.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 저자.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지정토론 : 예방정책

김 지 연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 승 걸 교장	남서울중학교
한 길 자 박사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김 지 연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토론회는 지난 해 말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다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문은 정제영 교수님의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발제문의 각 장별 주요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두서없이 제시하였습니다.

1. 학업중단 어떻게 볼 것인가

→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벗고 1차 안전망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

발제문에서 학업중단은 ‘정규 학교에서 재학을 중단한 것’으로 정의하고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정의함. 학업중단은 복합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고교생 학업중단자 10명 중 8명은 ‘부적응’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생의 경우에도 10명 중 1명, 중학생은 10명 약 5명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임. 즉, 상당수가 학교환경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한다고 볼 때 정책대상은 학생 뿐 아니라 학교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거나, 부적응을 유발하는 학교 환경과 교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두 가지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입시중심의 현행 교육여건에서 낮은 성적과 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주변인에 머물 수밖에 없어 면학 환경 자체가 학생들의 ‘부적응’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임. 단, 공

부는 못하고 부진하지만 학교에는 친한 친구가 있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재미있는 꺼리가 많아 ‘다닐 만 하다면’ 어떨까? 이는 학생 자신의 학교 적응력과 다닐만한 학교 환경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할 것임. 선행연구를 통해 수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 자체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로부터 1차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문제는 결국 학생이 1차 안전망 밖으로 내몰리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사안임.

2.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방향

→ 학생의 적응력 제고와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발제자는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방향을 첫째, 학업중단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둘째,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넷째,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로 제안함.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적극 동의함.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방향은 사후적 접근이라 아쉬움이 있음. 다만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도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는 장치를 강화하고(예, Wee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꿈과 끼를 키워주는’ 것이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학업중단자를 ‘발견’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교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방법론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함. 아울러 발제자는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방향을 이하 방안과 동일한 위상으로 제시하였는데, 정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담는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 주실 것을 당부드림.

3.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방안

→ 진단보다 개입, 제도 신설에 앞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체계를 내실화해야 함.

발제자가 제시한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방안을 첫째, 학업중단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둘째,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넷째,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등 네 가지 틀에서 제안함.

첫째, 학업중단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에서 ‘학교부적응 진단도구(SMT)’ 개발, 학업중단 예방지원 강화 및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 지정 등 관리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제안함. 필요하고 좋은 제안임! 다만 별도의 학교부적응 진단도구를 개발해 쓰지 않더라도 기존 검사와 진단도구만으로도 대상자 발견은 충분히 가능함. 진단만 있고 후속적인 개입이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일 것임. 도구 개발보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내 지원체계,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자원을 우선 투입할 것을 제안함.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동의함. 다만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질병, 해외 출국 등 제외) 이들에게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준비 정도는 어떠한지? 본 제도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연계 정도와 제반 인프라 여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임. 2012년 현재 Wee센터 상담원 1인당 연간 462명(심리검사, 전화-사이버상담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상담원 1인당 연간 180명(CYS-Net을 통한 의뢰 기준)의 학교 밖 고위기 청소년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남.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인력을 포함한 운영 기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

현행 일정 기간(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할 경우 학교에서 학생별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숙려제 경과 등을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고 이후 학교에서는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교육청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편차가 있긴 하지만 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2~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내 학교에서 1명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만 센터로 의뢰하여도 사례관리는 불가능한 수준임. 발제자가 교내에 ‘학교 부적응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 주실 것을 요청함.

둘째,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 확대, 대안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확대, 위탁교육기관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발제자의 제안 중 사전예방적 접근에 근접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함. 먼저 현행 Wee클래스, 상담실, 학교사회복지실 등이 교내 대안교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단, 낙인(stigma)의 요소가 없도록 세심한 운용이 요구됨.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평가 시 설치 여부와 설치 개소 수, 대상자에 대한 의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성적처리상의 문제와 불편 문제, 원격학교에 20일 이상 출석 의무 조항의 경우 일부 학생(예, 미혼모)들의 수업 공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임.

셋째,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 단위에 (가칭)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사회적 참여 활성화 및 교육청·지자체 책무성 확보 등을 제안함. 먼저 중앙·지방단위에 설치를 제안한 센터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인지? 별도 센터 설치를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부처 단위에서의 협의와 조율에 문제가 없는지, 기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함.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자생적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현행 학업중단 위기학생 안전망이 이원화되어 있는 태생적인 한계로

사각지대 발생, 대상자 누락, 책임 회피 등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 자체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전제로 한다면 중앙단위의 교육부 - 여성가족부, 중앙지원센터(hub)로서 Wee특임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단위의 Wee센터(Wee클래스, Wee스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연계·협업이 제도화(의무화)만 되어도 별도 센터 설치 못지않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함. 이와 함께 학교(교육청)와 지역사회 내 상담복지인력 간 교류, 공동 연수, 급여 및 처우 개선, 사례관리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되길 희망함.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제안한 법제화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함. 다만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법에서 이미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

오 승 결 교장 (남서울중학교)

자발적이든 또는 비자발적이든 학업 중단자가 대략 28만 여명에 달한다. 발제자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교를 재학하던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의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학업 자체를 중단하였다기보다 더욱 엄밀하게 정규 학교에서의 재학을 중단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을 ‘학업 중단자’라고 할 때, 탈학교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원인과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있다. 사회 및 가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탈(脫)학교의 현상은 일견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학교 부적응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분출하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교육이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모두 문제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위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문제 접근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은 곧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을 예방하는 일이므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

- (학업중단 현황) ○○중학교에서는 2012년 8명, 2013년 7월 현재 4명이 학교 학업을 중단하였다. 12명 중 1명만이 해외이주 유학이고, 나머지 11명은 장기 결석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유예자들이다. 11명 중 2명이 재취학하였으나 2명은 재차 학교를 중단하였다. 그 외 9명의 학업중단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 학교에는 나오지만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학업중단 가능성이 큰 학교이탈 경계지점에 있는 위기학생들이 상당수이다.

- (경제적 취약계층) 총 학생수 650명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보면, 기초수급자 41명, 차상위 9명, 한부모가정 31명 등 총 81명 12.5%에 이르며, 기타 학급담임이 추천한 저소득층자녀 97명을 포함시킬 경우 총 178명 27.3%에 달한다.(○○중, 2013).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특별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도 부실한 편이다.
- (학교폭력 노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우울증, 학교폭력 피해 징후 등 위험군 학생이 3학년 32명, 2학년 22명, 1학년 30명 등 총 84명 12.9%에 달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율은 17.9%('12년 1차)→14.7%('12년 2차)→3.8%('13년 1차)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12건('12)→10건('13)으로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일반항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가·피해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습의욕이 떨어지며 타인과의 관계장애를 겪고 있어 학업중단의 위기학생으로 볼 수 있다.
- (학업성취 미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보면, 2012년 1학기 1학년 교과별 성취미달인 E등급 비율이 국어 30.4%, 영어 31.1%, 수학 38.8%, 과학 56.6%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다.

□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과 그 한계

단위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학교에 있다고 하여도 학업중단 요인이 심리적, 가정·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다 효과적인 학교 안팎에 걸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 (교육복지 특별지원)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학습 및 문화체험,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교육복지 대상자 178명 학생 중 36명(이 중 15명은 2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인 20.2%만이 참여하고, 나머지 79.8%의 학생들은 학교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단위학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학교 배치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 지역사회 연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Wee 클래스 운영) 학교 내 위기학생들의 완충지대로 Wee 클래스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학교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Wee 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초중고 1,300여개 중 511교에 불과하다.
- (학생 생활지도 규정 운영) 단위학교는 학교규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수업태도, 용의복장, 흡연·음주, 지각 및 결석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상벌점제 등 엄격한 학칙 적용을 통해서 문제 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전학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엄격한 학교규칙의 적용이라는 지적(김성기 교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게 2주간 상담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3년 서울시 교육청 고등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결과를 보면, 대상자 2,932명 중 996명

이 숙려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이 중 290명(29.1%)이 학업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숙려제 참가비율 및 프로그램 질 제고,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 학교의 역할 제고 방안

- 학업중단 학교이탈 청소년은 ‘탈(脫)학교 난민’(동국대 조벽 교수)과 유사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 차원에서 난민을 방치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듬고 지원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업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대안교실 및 학교 확대,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학교 안팎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인성이 미성숙한 소위 “문제아”는 주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런 증세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사춘기 아동의 두뇌와 호르몬 상태), 심리적(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환경적(집안 환경, 학교 환경 등) 요소로 보이며 이 중 환경적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행동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의 85%는 집에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이다.(미국 질병관리국 통계). 즉, 이들 ‘문제아’의 행동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양육과 교육의 결과이지 원인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인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2009. 위기학생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차명호)
- 이처럼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가정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모의 적절한 보호지도가 불가능한 가정해체의 위기 속에서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업중단의 문제는 학교의 역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학교 밖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지원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교원의 인식 및 지도역량 강화)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기본적으로 학급 내에서 이루어진다. 교사에 의해서 관찰되고 지도가 이루어진다. 교사의 지도력

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을 좌우하는 핵심 키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사의 지도력을 높이는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급경영, 상담 및 심리, 소통 및 공감 등 생활지도 직무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 특별관리 지원) 매년, 학업중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Wee 클래스 설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규칙 운영 개선,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업중단율을 낮춰 나가야 할 것이다.
- (Wee 클래스 등 대안교실 운영 확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일반학생과 같이 교실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책에 불과하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무조건 교실 밖으로 격리하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완충지대로 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일반 교육과정이 아닌 정서안정, 심리치료, 관계회복, 진로탐색 등 맞춤형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 생활지도담당교사 시수 감축, 교내외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학교 밖과 연계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학교 안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양화하고, Wee 센터, Wee 스쿨 등 학교 밖 완충지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 진로·직업교육, 심리치료, 학습클리닉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국가적 관리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태조사, 학교 안·학교 밖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학교복귀 및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팀 운영은 참고할 만하다.

「학업중단 예방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한 길 자 박사 (충청남도교육청)

본 연구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방향을 첫째,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 둘째,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질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고,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넷째,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및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한 현실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학업중단에 대한 용어 정리가 정립되지 않아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야 하는지와 현황 파악을 할 때 혼란이 될 수 있는 요지에 대하여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명명해 준 것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업중단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조기발견을 위하여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학교 내 정서·행동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별”이라는 단어로 아이를 정신병자로 취급한다는 항의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바꾸고 전수조사를 초등학교 입학한 1년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정서·행동발달 상의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학생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 후에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위기학생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진단검사결과를 DB화하여 증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신뢰롭게 검사에 임할지도 의문이 갑니다.

현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결과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학생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기숙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층검사 및 관찰을 병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즉, 학교로 복귀가 필요한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보낼지, 위탁기관에 보낸다면 어느 기관이 가장 적합할지(심리치료, 다양한 직업교육), 학교를 바꿔줄지, 검정고시가 필요한지 등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사, 학부모와 상의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 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할꺼라면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을 벗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선생님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대상학생은 상담을 병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가 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하고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학생관리가 엉망이고 마지못해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3.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연구자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방안을 보면 중앙수준, 지역수준의 센터를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범부처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모델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께서 제안한 것과 같이 지역별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기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한 기구가 몇 개가 기존적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라서 기능을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실무진으로 세워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산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책 방안에 대한 아쉬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에 대한 검토와 정보가 없다는 것입

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실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제해결에 대한 개입보다는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1차 보호망인 가정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배제한다면 기관을 믿고 협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지정토론 : 지원정책

이 은 경 교수	명지대학교 청소년학과
전 석 운 부장	국민일보 사회부
조 규 필 박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



이 은 경 교수 (명지대학교 청소년학과)

청소년기는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이들은 자신의 발달 과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적·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때로 청소년들은 개인적, 환경적 요구에 의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문제행동이나 현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문제로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기초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해밀사업으로 자리잡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하였다(금명자, 주영아, 김태성, 이자영, 김상수, 신현수, 2005).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두는 현상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하는 추세로 2012학년도에만 68,189명에 달한다(교육부, 2013) 것은 시급하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나타낸다. 특히 현장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안하고자 애쓰셨던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러한 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방과 지원책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보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양한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빨리 청소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우선순위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 및 정책 공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방문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이다. 청소년상담자들이 학교밖 청소년들과 접촉을 시도해보지만 자퇴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는 위기의 학생들은 그나마 학교나 상담자를 통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나 그나마도 자퇴를 하게 되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조항들이 명시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질 것이다. 법령이 제정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학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취업이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부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정부내의 각 부처들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 하에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각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지 못하고 단편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들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 그리고 지방의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적 비능률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단위의 지원체계, 정보망,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법령과 제도를 형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할 및 지역사회에서의 구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의 구성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발표자의 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만 여성가족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의 강화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나 학교, 노동부 등과의 정책적

연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학교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 많은 학교내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학교내 교사, 상담교사,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원, 고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연계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지원 상담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 상 수동적 태도와 의욕상실로 인해 상담센터로의 방문이나 연계기관에 의뢰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인해 노력이나 시간투자에 비해 즉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담당자의 희생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충동적인 성향과 불규칙한 수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금명자 외, 2005). 학교 밖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복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업중단 이후 강화된 불규칙한 생활태도와 낮은 동기, 저하된 자아개념과 자기조절 능력의 결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에 복귀한 이후 다시 탈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적응적인 학업복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재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 2006).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심리내면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며, 학교밖 청소년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진로관리 역량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은 발굴하기도 어렵고, 발굴한다해도 이들의 특성상 지원에 연계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규칙이나 학교적응 과정에서 생겨나 누적된 좌절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무기력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의 경우 사례를 판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내적 및 환경적 위험요소들과 지원서비스의 콘텐츠로 고려해야할 보호요소를 밝히고, 사례판정과 지원서비스 연

계 모델을 수립하며, 학교밖청소년의 문제 상황 단계별(의뢰전, 의뢰, 의뢰 후 단계)로 수립된 모델에 기초한 판별과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가정현황과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상담 및 치료, 교육, 주거, 직업제공 등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내용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그리고 가출이나 비행 등 위험에 노출된 학교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개입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발표. 2013. 9. 4 교육부 보도 자료
금명자, 주영아, 김태성, 이자영, 김상수, 신현수(2005). 학교밖청소년지원모형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청소년상담원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2006). 위기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2009). 학업중단 청소년. 아동학회지 30(6), 391-403.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토론

전 석 운 부장 (국민일보 사회부)

1. 학교밖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학령기(6~21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 중퇴, 진학포기, 공교육 거부, 홈스쿨 등
- 학령인구,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학교밖 청소년은 실질적 증가 추이
: 학령인구 2000년 11,383천명 2006년 10,482천명 2012년 9,595천명
: 학생수 2000년 8,549,865명 2006년 8,322,023명 2012년 7,384,788명
: 학업중단 2000년 75,232명 2006년 70,796명 2012년 68,188명
- 4대악의 중첩적 피해자
: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2. 학교밖 청소년, 얼마나 많은가

- 14만~36만명 추산 : 공식통계는 없어
- 해마다 학교 그만두는 초중고생 : 5만~7만명
- 복귀율은 절반도 안돼

3. 그들은 왜 학교를 떠나는가

- 학교부적응 : 성적, 진로, 폭력, 우울
- 가정적 요인 : 학대와 방치
- 개별적 요인 : 사회성부족, 낮은 지능, 질병(난독증), 학습장애, 적성

4. 떠난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 PC방, 찜질방, 가출팸, 하우스메이트

5.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위험한가

- 성인 재소자 보다 많은 이탈 청소년
- 10대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 생존의 위협과 범죄의 유혹 사이에서 불안과 분노 키워
- 주요 흉악범들의 공통점은 학교이탈 전력
 - 고종석 :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범 : 중학교 중퇴
 - 김길태 :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 고교 중퇴
 - 김수철 :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 초등학교 중퇴

6. 학교 밖 청소년,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 의식주 해결
- 가정의 회복
- 후견인의 지지/주변의 관심과 사랑
- 경제적 자립
-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vs 돌아가고 싶지 않다

7. 어떻게 도울 것인가

1) 단기

- : 쉼터와 드롭인센터 확충, 활성화
- : 상담과 숙식 지원
- : 무료 식권과 쿠폰 지급
- : 지역보건소 무료건강검진
- : 친권박탈자의 아동 보호시스템 구축(경찰과 협조)

2) 중기

- : 학교복귀 지원 상담(쉼터-청소년보호기관-보건소-교육청-경찰서 연계)
- : 기술교육 등 맞춤형 대안교육기관 알선
- : 쉼터 등 청소년보호기관의 학력기관 인증 및 지원
- : 미혼모대안학교 등 맞춤형 대안학교
- : 위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 연계 강화

3) 장기

- : 다양한 공립대안학교 확대 신설
 - 기숙형직업학교/연예학교/스포츠학교/미혼모대안학교
- : 입양과 후견인제 장려
 - 세제혜택, 정부지원금, 사배자 입학전형 우대, 학비면제, 장학금 우선지급 등
- : 친가정 정책 개발과 가정해체 예방책 마련 시급
 - 행복가정 프로젝트, 행복부부수당
- : 학교와 가정 소통 강화
 - 학부모 설명회 의무화,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가정방문 부활
- : 행복학교, 행복교육 추구
 - 떠나고 싶지 않은 학교, 돌아가고 싶은 학교 만들어야
 - 아이들의 눈높이
 - 교육의 시작과 끝은 관심과 사랑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토론

조 규 필 박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대응팀)

본 토론자는 발제자께서 밝히신 여러 정책 제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과 부모, 실무자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일일이 조사하여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담아 낸 정책 제언을 해주신 발제자의 원고를 읽고 사업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발제내용이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밖청소년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부분적으로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본 토론문을 통해 좀 더 숙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학교 안 밖의 연계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교밖청소년 정책은 독일과 비슷하게 학교 안은 교육부,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학업중단 전후 시기에 대한 뚜렷한 연계정책이 없어, 학업중단 이후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이 28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에 이르는 등 정책 공백이 큰 실정이다. 발표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밖에서 지원하고자 하여도 정작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시 학교 안 밖의 접점에 대한 연계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첫째, 학업중단시 ‘학교 밖의 CYS-Net 운영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드림·해밀)의 지원 서비스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밖 지원 정보

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학교중단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청과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대책 평가시 ‘복교율’도 평가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대책 평가지표에는 자퇴율,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통한 자퇴의사 철회비율이 계량지표로 되어있어, 교육청과 학교가 예방대책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퇴율(자퇴학생/재학생×100) 계산시 자퇴학생 수에서 복교학생 수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그래야만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 둘 경우, 학교 안 밖의 접점에 있는 교육청이 학교 밖의 서비스 지원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학교에 다시 복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교육청, Wee센터, CYS-Net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따라 교육청과 CYS-Net 운영기관 간의 협력이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중단시 정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Wee센터, CYS-Net 등 학업중단 관련 중추기관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원활한 협력, 학업중단시 정보연계, 중단 이후 복교지원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필요시 연 1회 정도 관계 기관 간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1년 간의 연계과정을 평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배치 관련

발제문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 청소년을 위한 커리어코치 배치 및 진로정보시스템 구축, 학습코치, 학업중단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각각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면 학교밖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정규학교에서는 각 과목마다 교사가 있고 상담교사, 양호교사 등의 인력이 있지만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교밖의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은 재학생 수준보다 수십~수백배 이하로 줄어든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각각의 전문인력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 전문인력 양성시 이러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 및 진로지도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유사 정책사업들처럼 연간 학교밖청소년 50명 당 최소 1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

하지만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의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교육비를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 인력이기 때문에 1~2년 마다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기간제법에 의거 2년이 되기 전에 고용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소속기관에서 그만 두게 하는 일은 정말 심각한 인력 손실이다. 학교밖청소년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관을 보고 찾아가지만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담당 실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만두면 청소년도 서비스를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가부의 두드림해밀 사업의 경우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비정규직 실무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건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2년이 경과되어도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두드림해밀 근로자도 아래 예와 같이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복지부의 드림스타트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조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4조1항 5호, 동법 시행령3조2항1호)을 적용하여 2년이 경과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인정 예〉

근거 법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5호	① 드림스타트 사업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2.2〉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2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u>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에 해당하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적용 가능
동법 시행령 제3조2항1호	②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7(2011.11.23)〉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포함)에 채용되어 있는 민간전문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복지정책에 따라 <u>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로 볼 수 있어 <u>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u>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조기발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하여

발제문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조기발굴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들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접촉정보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조기발굴시스템,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학교밖청소년 자원정보를 수집하여 검색, 접근이 가능한 ‘자원맵핑시스템’, 그리고 서비스에 들어온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이력관리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시스템’ 등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접수하고, 해당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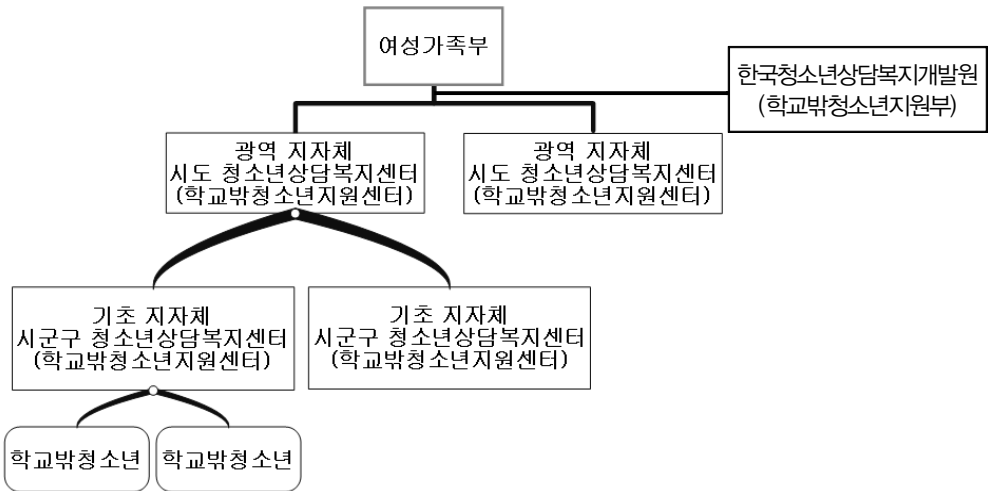
4) 가칭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안에 대하여

발제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기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국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국립센터’)의 역할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역할 수행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가령, 산재된 서비스 정보 축적, 개인정보망 구축, 중앙의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전국 서비스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은 중앙기관으로서 가능하겠으나, 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아웃리치 및 파견 상담, 가출 또는 비행청소년 원스톱서비스 등 직접서비스는 시범운영 성격으로 가능하겠지만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중앙의 단일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이러한 직접서비스는 지역 기관들의 몫이다. 또 예로 든 것처럼 각급 학교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정보 수합 및 지역센터의 개입요청, 성과보고 및 관리감독 기능 수행시 지역센터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성과보고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가능하려면 공적·법적 전달체계상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학교밖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센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이원화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현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상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학교밖청소년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차원의 학교밖청소년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CYS-Net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학교밖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별 학교밖청소년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CYS-Net을 운영하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존의 두드림·해밀사업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으로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서비스를 배분·지원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들(대안학교, Wee센터, 상담기관, 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비행에

방센터, 다문화 및 탈북청소년 지원기관 등)들의 서비스 정보를 수집·제공하며(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학교밖청소년 서비스 정보 자원맵핑시스템 개발 예정), 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별도로 또 다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가 분산되고, CYS-Net의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밖청소년에게 돌아가야 할 직접 서비스 비용이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드는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역별 학교밖청소년 지원 허브기능 예〉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부 록

1.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해밀
2. 전국 Wee센터 주소록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해밀

두드림·해밀 소개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 혹은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업지원프로그램, 자립준비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다시 학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으로 사회진출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두드림·해밀은 순 우리말로 ‘미래의 문을 두드리, 맑게 갠 하늘을 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5세~24세 청소년 (만 13~14세 학업유예청소년은 학업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
- 가정의 보호가 힘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주요 지원 서비스

“두드림·해밀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습지원	자립지원	심리지원
- 학습전략 코칭 - 기초학력 학습 - 검정고시 대비 - 인터넷 강의 - 멘토링	- 진로 목표 설정 - 일상 생활 관리 - 직업·경제 체험 활동 - 직업훈련 지원 - 자격증취득 지원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문화체험 - 동아리활동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검정고시 합격	대안학교 진학	복교 및 재적응	자립준비 완료

참여방법

- 직접신청 : 해당 지역 두드림·해밀로 직접 전화 혹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두드림·해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2-3일 이내로 선생님이 연락

▶ 홈페이지 주소 : www.dodreamhaemil.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Dodream-Haemil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두드림·해밀소개', '맞춤형 프로그램', '정보통', '쉬어가는 공간', '함께하는 공간', and '지역 두드림·해밀'. Below this i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 여기로 모여라~' and a sub-header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영수가 우연히 찾았던 두드림·해밀은 어떤 곳일까?'.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온라인참여신청' (Online Application), '멘토신청' (Mentor Application), '고민상담' (Counseling), and '서포터즈안내' (Supporter Guide). There are also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반쪽반쪽 친구들' (Half-Half Friends), '열정가득 선생님' (Passionate Teacher), and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With Warm People). A map of South Korea is shown on the right, with links to regional branches lik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and '제주'.

〈전국 운영기관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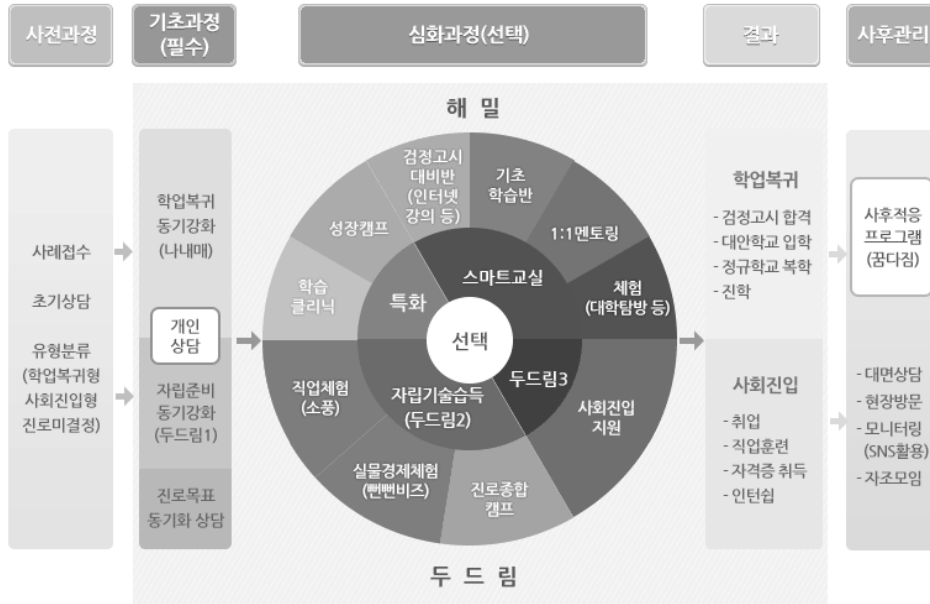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0105
	도봉구(창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950-9648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642-7939
	강남구(수서)청소년상담복지	02-2226-3611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842-2007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649-1318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23-0755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4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54-1380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706-1318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22-1388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90-0222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69-2000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67-1318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736-2041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051-304-1318	전북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32-2000
	해운대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80-1823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3-1388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468-287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53-1519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852-1388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60-8454	전남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45-0112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29-9153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061-242-7474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82-1318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795-7008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64-1388	경북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53-1389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463-9923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03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32-0925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461-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26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50-6600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547-0856	경남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280-9478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781-0079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7-9805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73-1310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734-1388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940-3969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655-1388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372-2000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432-1386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25-386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82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63-9191

세부 프로그램 소개

과정	목표	프로그램명		구조	내 용
① 사전 과정	목표 설정	① 초기상담 (유형분류 및 목표설정)		- 최초 1회 - 약 50분	- 참가신청서 작성 - 상담전문가와 상담및 심리검사 - 목표 유형 목표 결정 분류
② 기초 과정	1. 학업 복귀	② 이루다 (개인상담)		8영역 (4~5회기씩) - 회기당 50분	8영역 : 목표, 학업동기, 생활관 리, 지지환경, 대인관계, 비행, 정 신건강, 학업능력 - 상담전문가와 1:1로 만나 학업중 단 유형별 상담
		③ 나내매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전체 12회기 (회기당 90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망을 통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강화(소 풍, 졸업식 체험 포함)
	2. 사회 진입	④ 두드 림 1	드림빌딩(1회기)	4시간	미래의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경제야 놀자 (2회기)	5시간	게임을 통한 기본 경제원리 이해, 합리적 선택 및 돈 관리 등
			직업의 바다로(3회기)	2시간 30분	- 직업세계 탐구 및 직업유형 이해 -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직업성공 전략
			일자리 구하기 대작전(4회기)	2시간 30분	구직기술, 모의 면접, 직장예절, 근 로권교육
			독립만세(5회기)	2시간	자립준비상태 점검, 일상생활기술
			이 세상 최고의 밥상(6회기)	2시간 30분	성공목표 설정, 성공계획 수립, 실 천 결의 다지기
		⑤ 두드림 특성화		9영역, 38회기	- 대상 : 학업중단 / 시설보호 청소년 9가지 자립준비 영역 : 목표·가치 관, 직업준비, 경제관리, 주거생 활, 사회성 기술, 학업교육, 건강, 자원활용기술, 심리·정서
③ 심화 과정	1. 학업 복귀	특화	⑥ 맞춤형 학습클리닉 (공부방법 배우기)	8가지 학습전략 - 전체 35회기 (회기당 90분)	8가지 학습전략 : 학습동기, 학습 유능감, 기초기억, 심화기억, 주의 집중, 시험전략, 시험불안조절, 자 기관리
			⑦ 성장여행 (기숙형 대안캠프)	9박10일 기숙형 - 참여 : 20명 내외	생활밀착형 캠프활동을 통한 긍정 적 생활습관 형성 및 학업복귀 동 기 강화

과정	목표	프로그램명		구조	내 용
③ 심화 과정	1. 학업 복귀	스 마 트 교 실	⑧ 검정고시 준비반	• 10명 내외 / 3~6개월	• 연 2회(4월, 8월) 검정고시 대비 시험과목 집중지도 • 검정고시 학원비 및 교재비 무료 지원
			⑨ 기초학습 대비반	• 10명 내외 / 3~6개월	•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집중지도
			⑩ 인터넷 강의 교실	• 10명 내외 / 3~6개월	• 검정고시 과목, 모의고사 인터넷 무료수강(고시월 협약 지원) • 교재 무료제공 • 검정고시 준비관련 전화 컨설팅
			⑪ 학습 멘토링	• 6~12개월	• 필요 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도 • 학습관련 고민 나눔
			⑫ 기타 체험활동	• 체험활동 : 10명내외 (1~2일 과정)	•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 • 장학금 연계, 공부방 연계
	2. 사회 진입	두드 림 2	⑬ 소·풍 (직업체험)	• 1일(직업별)	• 개인/단체 희망 직업체험(소/ 중/ 대규모)(개인별 다수 참여 가능)
			⑭ 뽀뽀비즈 (실물경제체험)	• 2일(1일 이론, 1일 체험)	• 모의창업을 통한 실물 경제생활 이해(창업 아이템 선정 및 창업 절차, 홍보, 마케팅 등)
			⑮ 진로종합캠프	• 2~3일(숙박형) • 20명 내외	• 자립준비 관련 기숙형 특별 체험 과정(성공인 특강, 직업체험 실습, 단체생활 협력 등)
		두드 림3	⑯ 사회진입 지원	• 1대1 개별지원 • 1~3년(연장 가능)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④ 사후 적응 과정	사후 적응		⑰ 사후관리(개별지원)	• 1대1 개별지원 • 6개월	• 학업복귀(검정고시 합격, 대안학 교, 상급학교 진학) 후 적응 지원 : 교사면담, 학교적응 상담 등 • 사회진입(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후 적응 지원 : 퇴직기 술, 고용주 면담, 모니터링 등
			⑱ 꿈다짐 (사후적응 프로그램)	• 3회기 (90분씩) • 미션수행(1일) • 선택형 체험활동(1일)	• 대상 : 학업복귀/사회진입 성취 청소년 • 개인목표 성취에 대한 격려와 장 애물 극복방법(자율적 미션 활동 포함), 추가 체험활동

〈두드림 · 해밀 서비스 흐름도〉



① 사전과정

사전과정에서는 처음 두드림·해밀에 처음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과 1:1로 상담하는 초기상담단계를 거칩니다.

〈초기상담 진행과정〉

1. 참가신청서 작성
2. 초기상담 실시
 - 상담전문가와와의 만남 : 전문가선생님과과의 상담을 통해 나의 심리적·정서적 상태, 경제·사회적 환경, 욕구를 알아봅니다.
 - 심리검사 : 진로학습검사, 성격유형검사, 지능검사 등을 통해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도약의 밑거름이 될 나의 강점들을 찾아봅니다.
3. 사례판정 회의
 - 개인면접상담과 심리검사를 기반으로 나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최적의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4. 나의 목표 계획하기
 - 초기면접과 사례 판정회의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② 기초과정

1. 학업복귀 프로그램

② 이루다(개인상담)

두드림·해밀에 오기 전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나누고 싶거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안 언제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 두드림·해밀 청소년들과 부모님
- 구조 : 주 1회, 약 50분씩, 총 4회기 이상
- 주제 : 대인관계, 학업, 진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 가능하며, 상담 주제는 나와 선생님이 함께 협의해서 정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면서 혼자인 것 같아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만 내는 주변 어른들과 달리 선생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주셔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 22세 여

③ 나는 내인생의 매니저(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

내 생활은 내가 관리한다! 지금의 생활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생활의 주인인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고 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 학업중단 청소년
- 구조 : 전체 12회기, 회기당 90분
- 프로그램 회기구성

회 기	회기명	회 기	회기명
1회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7회기	애들아 소풍가자
2회기	나의 하루 조각하기	8회기	애들아 공부하자
3회기	그리 쉽진 않았죠	9회기	내 안에 전략있다

회 기	회기명	회 기	회기명
4회기	우리들의 이야기	10회기	갈등은 다룰 수 있어
5회기	내 인생의 매니저	11회기	나도 할 수 있어
6회기	미래스타 Zoom-in	12회기	졸업식

2. 사회진입 프로그램

④ 두드림 I (기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보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동기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 대상 :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 구조: 6회기, 총 18시간30분
- 프로그램 구성

회 기	내 용
1회기 드림빌딩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나만의 꿈과 비전을 품자!
2회기 경제야 놀자	게임을 통해서 기본 경제 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3회기 직업의 바다로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이 중에 내 미래의 직업은 어떤 것이 될까? 직업세계와 직업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그리고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세우기
4회기 일자리 구하기 대작전	지금 당장 내가 직장을 구하러 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의 기술, 면접의 기술을 전수받고 모의 면접도 받아보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를 배워서 일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기.
5회기 독립만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홀로서기를 할 때가 온다. 그 때를 대비해 밥짓기, 내가 살 집 구하기부터 데이트스트레스 대처 방식 까지 일상 생활에서 유용한 기술들을 모아모아 자립을 준비하기
6회기 이 세상 최고의 밥상	이제까지 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미래 나의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선포하기



⑤ 두드림 I (특성화)

기존의 두드림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회기로 진행된다면,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사한 내용을 모듈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대상 : 학업중단/ 시설보호 청소년
- 구조 : 9영역 38섹터 61모듈,
- 프로그램 구성 : 참여대상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가변적으로 모듈을 선택 운영
- 9가지 자립준비영역

영역	내용
1영역	미래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목표·가치관’ 영역(4개 섹터)
2영역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직업준비’영역(6개 섹터)
3영역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갖춰야 할 ‘경제관리’영역(6개 섹터)
4영역	주거문제 해결 및 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주거 및 일상생활’영역(4개 섹터)
5영역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회성 기술’영역(6개 섹터)
6영역	학업복귀 및 연장을 위한 ‘학업·교육’영역(4개 섹터)
7영역	신체적 건강관리에 관한 ‘건강’영역(2개 섹터)
8영역	자립생활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적절히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자원활용’영역(3개 섹터)
9영역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조절에 관한 ‘심리·정서’ 영역(4개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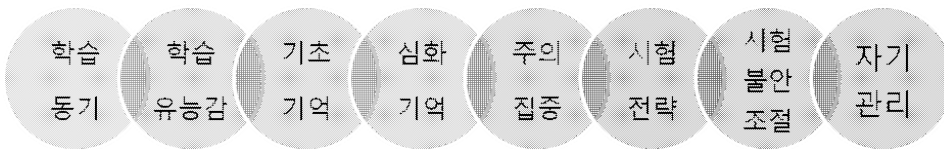
3 심화과정

1. 학업복귀 프로그램

⑥ 맞춤형 학습클리닉(공부방법 배우기)

‘공부와 나는 물과 기름처럼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글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공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맞춤형 학습클리닉은 나의 학습수준을 알아보고 재미있는 활동과 게임을 통해 8가지 학습전략을 익히고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 학습전략습득이 필요한 청소년
- 구조 : 전체 35회기, 회기당 90분
- 8가지 학습전략



““처음에는 공부 다시 하는 게너무 어렵고 머리 아파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맞춤형 학습 클리닉에서 학습습관을 익히게 되면서 공부가 좀할만하다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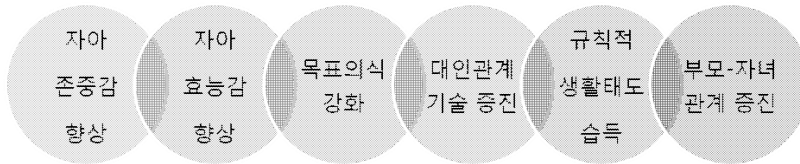
- 19세 남

⑦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

9박 10일간 복잡한 일상을 떠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며칠간 훌~쩍 떠나자.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어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캠프입니다.



- 대상 : 학업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20명 내외
- 구조 : 9박 10일 기숙형 캠프
- 프로젝트기반학습의 목표



🟢 스마트 교실

검정고시나 복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⑧ 검정고시 준비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친절하고 명쾌한 선생님의 지도와 함께 검정고시 출제유형, 과목별 공부요령, 시험공략법까지 마스터하면 검정고시 합격은 어렵지 않아요~



- 대상 :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10명 내외
- 강의기간 : 3~6개월

⑨ 기초학습 대비반

기초학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할수록 나중에는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다는 사실!!!

두드림·해밀의 소수정예반 기초학습 대비반에서 여러분의 현재 수준에 맞는 눈높이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10명 내외
- 강의기간 : 3~6개월

⑩ 인터넷 강의 교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인터넷 강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사 선생님들의 설명으로 교과목 이해도도 높이고 최신 출제 경향도 파악해 탄탄하게 검정고시를 준비해 보아요~

- 대상 :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10명 내외
- 강의기간 : 3~6개월

⑪ 학습 멘토링

내 곁에 힘이 되어주고 충실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때로는 따끔한 스승처럼 공부를 지도해주고 때로는 친한 형, 누나처럼 함께 고민도 나누어주는 든든한 멘토 선생님과 1:1로 매칭해드립니다



- 대상 :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 청소년 1명당 1인의 멘토 매칭
- 지원기간 : 6~12개월

⑫ 기타 체험활동

- 대학탐방

내가 원하는 학과 혹은 대학을 탐방하면서 미래에 캠퍼스를 누비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이젠 손에 잡히지 않던 공부에도 의외로 의욕충만해지는 듯?

- 문화체험

맨날 공부만 하려면 머리가 지끈 ~

영화, 콘서트, 뮤지컬, 전시회도 관람하고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에도 참여해 보아요. 책 밖의 세상 속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웁니다

2. 사회진입 프로그램

🌟 두드림 II (자립기술 습득과정)

⑬ 소·풍(소중한 직업풍경 속으로) - 직업체험

바리스타, 파티셰, 메이크업 아티스트, 판매원 등 우리들이 관심 많았던 직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업인을 만나고 업무를 체험해보는 말 그대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보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지, 막연히 멋있어 보여서 재미있어 보여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

- 대상 : 취약청소년 개인/단체
- 구조 : 수시, 1일간(직업별)



⑭ 뽀뽀비즈(Fun Fun Biz) - 실물경제체험

뽀뽀비즈는 ‘즐겁고(Fun) 신나는 비즈니즈(Biz) 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취업 외의 창업에 더욱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판매,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당당한 경제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 대상 : 취약청소년 개인/단체
- 구조 : 2일간 진행(1일 - 이론, 2일 - 체험)

⑮ 진로종합캠프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성공인특강, 직업체험 실습, 단체생활 협력 등이 포함되어 진행되는 기숙형 특별 체험과정 입니다.

- 대상 : 취약청소년 20명 내외
- 구조 : 2-3일(숙박형)



⑯ 두드림 III (사회진입지원)

그 동안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생한 친구들. 이제 정말 사회로 발을 내딛을 시간! 낯선 사회가 두렵고 걱정도 되겠지만, 두드림·해밀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대상 :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
- 구조 : 1대1 개별지원
- 기간 : 1~3년(연장가능)
- 지원내용 :

- ▶ 자격취득 지원 :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취업프로그램 : 민관 자원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기타 개별 서비스를 통한 취업 지원
- ▶ 직업훈련 연계 :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기술습득 지원

4 사후과정

⑰ 사후관리

청소년들이 초기면접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학교나 직장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 대상 : 학업복귀나 사회진출의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
- 구조 : 1대1 개별지원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내용

- ▶ 학교에 다니게 된 청소년들의 적응유지를 위해 학교방문 및 교사면담을 진행합니다.
- ▶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고용주 면담을 진행하고, 이직 및 퇴직기술을 교육하여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제공합니다.
- ▶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의 건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자조모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드림·해밀 커뮤니티를 통해 선생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⑱ 꿈다짐(사후적응 프로그램)

성공적인 목표성취를 스스로 축하하고, 더 높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다지는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미션활동과 추가적인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 대상 : 학업복귀나 사회진출의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
- 구조 : 총 3회기, 각 회기당 90분씩 진행(미션수행 1일, 선택형 체험활동 1일)
- 프로그램 구성

회 기	내 용
1회기	행복파티
2회기	꿈너머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플러스 드림	진로 및 직업체험, 직업훈련, 박람회 참가학탐방, 바우처 연계

※ 두드림·해밀 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범운영 (총 12개소 : 상설 두드림존 2개소, 시범 두드림존 10개소)
2009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 (총 20개소 : 상설 두드림존 3개소, 시범 두드림존 17개소)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 3개소 시범운영(대전, 광주, 제주)
2010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 (총 30개소 : 상설 두드림존 10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학업중단 및 학습부진청소년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개발
2011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 (총 36개소 : 상설 두드림존 16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해밀’사업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나내매)’ 개발
2012	• 두드림존 확대 및 모든 시범운영지역 정규 사업화 (총 49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3개소) •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두드림·해밀 통합 운영 (총 50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4개소) • 두드림·해밀 통합 홈페이지 구축(www.dodreamhaemil.kr)

전국 Wee센터 주소록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	서울	1	강남구	강남교육지원청 Wee센터	(135-825)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68번지(강남대로 120길 33) 논현초등학교 별관 3층	02-515-7179
		2	강동구	강동교육지원청 Wee센터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9-7 오륜중학교 후관 4층	02-3431-7887
		3	강서구	강서교육지원청 Wee센터	(157-24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768-1 송정중학교내	02-2665-7179
		4	관악구	관악교육지원청 Wee센터	(151-015) 서울 관악구 신림9동 1522-1 관악청소년회관 2층	02-884-7887
		5	광진구	성동교육지원청 Wee센터	(143-84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5-1 장안초등학교 후관동 1층	02-2205-3633
		6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150-834) 서울 구로구 개봉동 161-18 3층	02-2625-9128
		7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132-86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94-1 신도봉중학교 정보관 2층 Wee센터	02-949-7887
		8	동작구	동작교육지원청 Wee센터	(156-07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서울회관 404	02-824-7179
		9	서대문구	서부 청소년 Wee센터	(120-17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67-85	02-325-7887
		10	성동구	마음이랑 Wee센터	(133-861)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80 성동교육지원청 106호	02-2282-6102
		11	성북구	성북교육지원청 Wee센터	(136-130)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7-1 성북교육지원센터 3층	02-917-7887
		12	영등포구	문래Wee센터	(150-09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남부교육지원청	02-2677-7887
		13	용산구	중부교육지원청 Wee센터	(140-8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1623 용산중학교내	02-722-7887
		14	은평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122-9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84-54호 1층	02-383-0072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	서울	15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Wee 센터	(110-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77	02-3999-505
		16	중구	남산교육지원청 Wee센터	(100-051) 서울 중구 회현동1 가 100-177 서울특별시교육연 구정보원 11층	02-775-7887
		17	중랑구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131-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80 동부과학교육센터 4층 동부Wee센터	02-2233-7883
2	부산	1	남구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608-709) 부산광역시 남구 대 연6동 남구청길 22 5층 Wee 센터	051-640-0205
		2	사상구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617-8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쾌감로 132 감전초등 학교 4층	051-310-8329
		3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602-093) 부산광역시 서구 서 대신동3가 꽃마로33 서부교 육지원청 Wee센터(5층)	051-244-3266
		4	수영구	해운대교육지원 청Wee센터	(613-10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한바다중학교 별관 3층	051-744-7179
		5	연제구	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55번지 연산중학교 묘봉관 2층	070-8275-5092
3	대구	1	남구	대구가톨릭Wee 센터	(705-039) 대구광역시 남구 대 명9동 332-26	053-654-1388
		2	남구	영남Wee센터	(705-030) 대구광역시 남구 현 충로 170(대명동 318-4) 2층	053-217-2323
		3	달서구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704-907) 대구광역시 달서구 명덕로 22-9번지 내당초등학교 본관 3층	053-631-6279
		4	달성군	달성교육지원청 Wee센터	(711-83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명곡리 261번 지 달성중학교 신관 1층	053-638-2102
		5	동구	대동Wee센터	(701-846) 대구광역시 동구 효 목2동 645번지 대동병원별관 1층 대동Wee센터	053-746-7379
		6	북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702-901) 대구광역시 북구 팔 달동 74-3번지	053-326-8395
		7	북구	경북Wee센터	(702-210) 대구광역시 북구 학 정동 474	053-326-9279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3	대구	8	중구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700-83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2113번지(남문로 4길 6)	053-257-1275
		9	중구	동산Wee센터	(700-755)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202호	053-431-0288
4	인천	1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417-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관청리 200	032-930-7820
		2	계양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407-32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13-1 인천양촌중학교 5층	032-555-7179
		3	남동구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3번지	032-460-6371
		4	남동구	인천 가정형 Wee센터	(405-812) 인천 남동구 간석3동 774-21 명가리츠빌 나동 202호	032-515-7922
		5	남동구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9	032-432-7179
		6	부평구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403-7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꿈나무길66 북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032-510-1525
		7	중구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400-051)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 1가 11-3	032-764-7179
5	광주	1	광산구	서부교육지원청 광산Wee센터	(506-3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7(첨단중 3층)	062-974-0078
		2	북구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500-0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서양로 31 3층	062-605-5700
		3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502-718)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 서부교육지원청	062-600-9777
6	대전	1	대덕구	대전 가정형 Wee센터(남)	(306-812) 대전광역시 동춘당로 31번길 35	070-4070-4600
		2	대덕구	대전 가정형 Wee센터(여)	(306-050) 대전 대덕구 중리동 141-1	070-4640-1480
		3	서구	본청 Wee센터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94 향촌길 63	042-480-7878
		4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302-82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계백로 598 대전서부교육지원청 3층	042-530-1004
		5	중구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301-82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4번지	042-229-1004
7	울산	1	남구	강남교육지원청 Wee센터	(680-0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92-2 울산중앙초등학교 별관 1층	052-272-5041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7	울산	2	북구	강북교육지원청 Wee센터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연 암동 1223번지	052-219-5655
		3	울주군	교육과학 연구원 Wee센터	(689-8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	052-255-0180
8	세종	1		세종시교육청We e센터	(339-8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 원읍 새내14길7 명지빌딩 2층	044-868-1318
		2		세종시교육청제2 Wee센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 동 97-7 종촌중학교 후관 1층	044-715-7979
9	경기	1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교육지원청 Wee센터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 구 장항동 580-20)고양교육지 원청 Wee 센터	031-901-9173
		2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Wee센터	(423-010)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로 777	02-2610-1472
		3	광주시	광주하남교육지 원청Wee센터	(464-050) 경기도 광주시 송정 동 광주대로 178	031-760-4092
		4	군포시	군포의왕교육지 원청Wee센터	(435-050) 경기 군포시 금정동 84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13
		5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Wee센터	(415-040) 경기도 김포시 권순 로 26번길 예산	031-980-1125
		6	남양주시	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Wee센터	(472-100) 경기도 남양주시 도 농동 미금로212 도농중5층	031-566-7180
		7	동두천시	동두천양주교육 지원청Wee센터	(483-020) 경기 동두천시 지행 동 722-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031-860-4333
		8	부천시 원미구	부천교육지원청 Wee센터	(420-849)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길주길 147번지	070-7099-2175
		9	성남시 분당구	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	(463-946)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서현동 양현로 20(279번지)	031-780-2655
		10	수원시 장안구	수원교육지원청 Wee센터	(440-8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1 창용중학교 별관3층	031-246-0818
		11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Wee센터	(429-450) 경기도 시흥시 마유 로 446번길 11-2	031-488-2417
		12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425-130)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821 원곡초등학교 후관 4층	070-8730-9881
		13	안성시	안성교육지원청 Wee센터	(456-070) 경기 안성시 구포동 186	031-678-5258
		14	안양시 동안구	안양과천교육지 원청Wee센터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관양동 관평로 210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5층	031-380-7070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9	경기	15	여주군	여주교육지원청 Wee센터	(469-804) 경기도 여주시 청심 로 181	031-880-2308
		16	용인시 수지구	용인교육지원청 Wee센터	(448-16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38번지 현암중 4층	031-889-5775
		17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 청Wee센터	(480-844) 경기도 의정부시 의 정부1동 225-3	031-820-0093
		18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 Wee센터	(467-803) 경기도 이천시 증포 동 이천고 1길	031-639-5638
		19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Wee센터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촌 동 783	070-4918-2422
		20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Wee센터	(459-020) 경기도 평택시 장당 동 640번지 장당중학교 내	031-665-0806
		21	포천시	포천교육지원청 Wee센터	(487-871) 경기도 포천시 군내 면 호국로 1520 포천교육지원 청 마흘나래관 2층 Wee센터	031-539-0026
		22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 원청Wee센터	(447-220) 경기도 오산시 내삼 미동 715	031-371-0651
10	강원	1	강릉시	강릉교육지원청 Wee센터	(210-708) 강원 강릉시 노암동 노암등길 39	033-640-1280
		2	고성군	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638-803) 경상남도 고성군 고 성읍 동화로 108	055-670-8160
		3	동해시	동해교육지원청 Wee센터	(240-807) 강원도 동해시 천곡 동 117번지 동해교육지원청 3 층 Wee센터	033-530-3035
		4	삼척시	삼척교육지원청 Wee센터	(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 로3길 32 (교동)	033-570-5199
		5	속초시	속초양양교육지 원청Wee센터	(217-805) 강원 속초시 미시령 로 3336	033-639-6054
		6	양구군	양구교육지원청 Wee센터	(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 읍 관공서로 32	033-480-1410
		7	원주시	원주Wee센터	(220-947) 강원도 원주시 단구 로 151	033-760-5691
		8	인제군	인제교육지원청 Wee센터	(252-806) 강원도 인제군 인제 읍 인제로193번길 15	033-460-1050
		9	정선군	정선교육지원청 Wee센터	(233-805) 강원도 정선군 정선 읍 봉양4리 9 정선Wee센터	033-562-5877
		10	춘천시	춘천교육지원청 Wee센터	(200-120) 강원도 춘천시 약사 동 2-2번지	033-259-1691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0	강원	11	평창군	평창교육지원청 Wee센터	(232-806)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033-330-1712
		12	화천군	화천교육지원청 Wee센터	(209-800)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	033-440-1510
		13	횡성군	횡성교육지원청 Wee센터	(225-800) 강원도 횡성군 횡성 읍 한우로 242번길 9호	033-340-0334
11	충북	1	괴산군	괴산중평교육지 원청Wee센터	(367-802) 충청북도 괴산군 괴 산읍 읍내로 3길 23 (괴산읍 서부리 508)	043-830-5079
		2	단양군	단양교육지원청 Wee센터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 양읍 별곡리 단양교육지원청 맞 춤형교육지원센터 내 Wee센터	043-420-6121
		3	보은군	보은교육지원청 Wee센터	(376-820) 충북 보은군 삼승면 능월1길 11 보은 Wee센터	043-902-7179
		4	영동군	영동교육지원청 Wee센터	(370-807) 충청북도 영동군 영 동읍 부용리 부용리 42-5번지	043-740-7725
		5	옥천군	옥천교육지원청 Wee센터	(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262	043-731-5062
		6	음성군	음성교육지원청 Wee센터	(369-903) 충청북도 음성군 금 왕읍 금석리 금석로 65-2	043-872-3351
		7	제천시	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390-899) 충청북도 제천시 청 전동 470 제천학생회관 1층	043-653-0179
		8	진천군	진천교육지원청 Wee센터	(365-807)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읍내리 상산로48(읍내리 435-6)	043-530-5308
		9	청원군	청원교육지원청 Wee센터	(363-887) 충청북도 청원군 오 창읍 유리 유리 394번지 유리 체육공원 2층	043-213-5288
		10	청원군	청원 가정형 Wee 센터	(363-88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 읍 유리 394번지 유리체육공원	043-213-6288
		11	청주시 홍덕구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산남동 370번지 청주교 육지원청	043-299-3173
		12	충주시	충주교육지원청 Wee센터	(380-010) 충청북도 충주시 성 내동 229번지	043-845-0252
12	충남	1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Wee센터	(314-010) 충청남도 공주시 금 성동 왕릉로 18	041-850-2340
		2	금산군	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312-805) 충청남도 금산군 금 산읍 아인리 64-3	041-750-8853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2	충남	3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Wee센터	(320-803)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관촉로 54	041-730-7146
		4	당진군	당진교육지원청Wee센터	(343-030)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807 당진교육지원청	041-351-2534
		5	보령시	보령교육지원청Wee센터	(355-93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2동 보령북로 167	041-930-6380
		6	부여군	부여교육지원청Wee센터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413-4	041-830-8294
		7	서산시	서산교육지원청Wee센터	(356-837)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문화로 112(576-14번지)	041-660-0347
		8	서천군	서천교육지원청Wee센터	(325-80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16-3	041-950-6091
		9	아산시	아산교육지원청Wee센터	(336-020)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	041-539-2292
		10	예산군	예산교육지원청Wee센터	(340-80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19 - 3 번지	041-330-3644
		11	천안시 서북구	천안교육지원청Wee센터	(331-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59-1 천안교육지원청 지하1층 Wee센터	041-529-0685
		12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Wee센터	(345-80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216-10	041-940-4490
		13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Wee센터	(357-90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17-1	041-670-8251
		14	홍성군	홍성교육지원청Wee센터	(350-80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고암리 541-2	041-630-5553
13	전북	1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Wee센터	(573-88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22 군산교육청 별관	063-450-2680
		2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Wee센터	(576-805)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요촌북로 70	063-540-2551
		3	남원시	남원교육지원청Wee센터	(590-986)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92-4(용성초등학교 정문 오른쪽)	063-635-8531
		4	부안군	부안교육지원청Wee센터	(579-8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063-580-7482
		5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Wee센터	(595-803)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남계리 268-1	063-650-6320
		6	익산시	익산 제1Wee센터	(570-963) 전북 익산시 중앙로 179	063-850-8990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3	전북	7	익산시	익산 제2 Wee센터	(570-170) 전북 익산시 신동 대학로 186	063-852-4501
		8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 Wee센터	(566-8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이도리 142-10)	063-640-3571
		9	전주시 덕진구	전주교육지원청 덕진Wee센터	(561-8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46-1(진북초 내)	063-253-9214
		10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육지원청 완산Wee센터	(560-08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4-1(전주초 내)	063-253-9523
		11	정읍시	정읍교육지원청 Wee센터	(580-80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충정로 446(상동319-12)	063-530-3035
		12	진안군	진안교육지원청 Wee센터	(567-8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번길 47	063-430-6294
14	전남	1	고흥군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	(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백련장전길 36	061-830-2075
		2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 Wee센터	(516-80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061-362-3994
		3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 Wee센터	(545-80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51번지	061-762-2821
		4	구례군	구례교육지원청 Wee센터	(542-804)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 2길 21	061-780-6690
		5	나주시	나주교육지원청 Wee센터	(520-943)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119번지	061-337-7179
		6	목포시	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	(530-706) 전남 목포시 교육로 5 (상동972)	061-280-6624
		7	목포시	신안교육지원청 Wee센터	(530-702) 전라남도 목포시 중동2가 165번길 25	061-240-3690
		8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	(534-802)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44번지	061-450-7025
		9	보성군	보성교육지원청 Wee센터	(546-8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061-850-7143
		10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540-14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연향2가 78번지	061-729-7778
		11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 Wee센터	(550-150)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826 진남초등학교 서편 건물 2층	061-807-3100
		12	영광군	영광교육지원청 Wee센터	(513-80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061-350-6649
		13	영암군	영암교육지원청 Wee센터	(526-80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753	061-470-4135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4	전남	14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Wee센터	(537-802) 전라남도 완도군 완 도읍 개포로 114번길 30-12	061-550-0500
		15	장성군	장성교육지원청 Wee센터	(515-805) 전라남도 장성군 장 성읍 영천리 1070번지	061-393-7189
		16	장흥군	장흥교육지원청 Wee센터	(529-800)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64-17	061-863-0028
		17	진도군	진도교육지원청 Wee센터	(539-800) 전라남도 진도군 진 도읍 성내리 38-1	061-540-5100
		18	함평군	함평교육지원청 Wee센터	(525-802)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164 기각리 892-3	061-320-6631
		19	해남군	해남교육지원청 Wee센터	(536-800) 전라남도 해남군 해 남읍 685-3	061-530-1147
		20	화순군	화순교육지원청 Wee센터	(519-805) 전라남도 화순군 화 순읍 혼리 화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061-370-7155
15	경북	1	경산시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712-260) 경상북도 경산시 갑 제동 657-6 경산교육지원청	053-810-7508
		2	경주시	경주교육지원청 Wee센터	(780-170) 경상북도 경주시 탑 동 676-2번지 (구)오릉초등학교	054-740-7142
		3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	(730-070) 경상북도 구미시 신 평동 산 4-10번지	054-465-6280
		4	군위군	군위교육지원청 Wee센터	(716-804) 경상북도 군위군 군 위읍 군청로 204 (동부리230-2)	054-380-8254
		5	김천시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	(740-707) 경상북도 김천시 성 내동 김천교육지원청 3층	054-420-5288
		6	문경시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	(745-812) 경상북도 문경시 호 계면 견탄리 500-5번지	054-552-3176
		7	봉화군	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	(755-805) 경상북도 봉화군 봉 화읍 1202 (280-1)	054-679-1750
		8	상주시	상주교육지원청 Wee센터	(742-080) 경북 상주시 서문동 128번지(구교육청)	054-531-9940
		9	성주군	성주교육지원청 Wee센터	(719-804)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읍 주산로 71-4 (삼산리 432-3)	054-930-2050
		10	안동시	안동교육지원청 Wee센터	(760-230) 경북 안동시 당북동 경동로 554	054-851-9138
		11	영주시	영주교육지원청 Wee센터	(750-901) 경북 영주시 가흥1 동 279-2	054-630-4214
		12	영천시	영천교육지원청 Wee센터	(770-705) 경상북도 영천시 화릉동 장수로 18-2 3층 영천 Wee센터	054-330-2328

번호1	시도	번호2	지역	명칭	주소	대표 전화번호1
15	경북	13	울진군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767-872)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북1길 울진학생야영장 2층 울진Wee센터	054-782-9915
		14	의성군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769-80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의성교육지원청 정보교육관 1층	054-830-1125
		15	칠곡군	칠곡교육지원청 Wee센터	(718-80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72-5번지 칠곡교육지원청	054-979-2130
		16	포항시 북구	포항교육지원청 Wee센터	(791-0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번지 포항중앙초등학교내(3층)	054-244-2094
16	경남	1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 Wee센터	(656-30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055-636-9673
		2	거창군	거창교육지원청 Wee센터	(670-804)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03-4	055-940-6191
		3	고성군	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638-80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10번지	055-673-3801
		4	김해시	김해교육지원청 Wee센터	(621-070) 경남 김해시 삼안로 24번길 7 활천초등학교 서관 4층	070-8767-7571
		5	남해군	남해교육지원청 Wee센터	(668-80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14	055-864-3653
		6	밀양시	밀양교육지원청 Wee센터	(627-910)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4 영재교육원 1층	055-350-1524
		7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Wee센터	(626-814)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055-379-3100
		8	진주시	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660-010)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4-9 진주교육청 4층	055-740-2091
		9	창원시 의창구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630-80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35-1	055-252-8815
		10	통영시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	(650-82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25-32	055-650-8005
		11	함안군	함안교육지원청 Wee센터	(637-80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57번지 함안교육지원청 3층	055-580-8048
17	제주	1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Wee센터	(697-8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064-730-8181
		2	제주시	제주시교육청Wee센터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남광로 27번지	064-754-1252